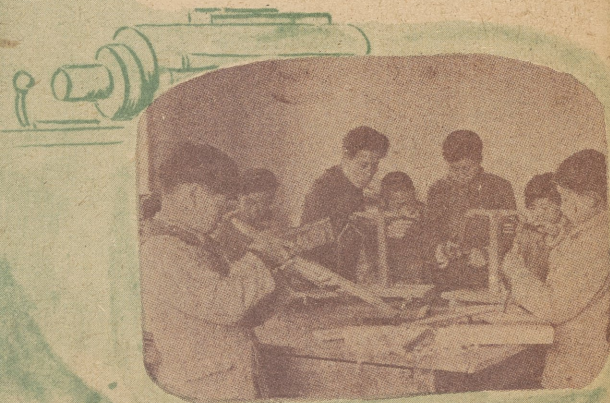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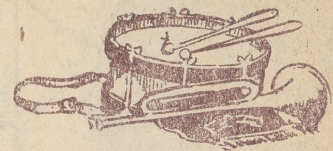
우리 나라에서 만든
경공업 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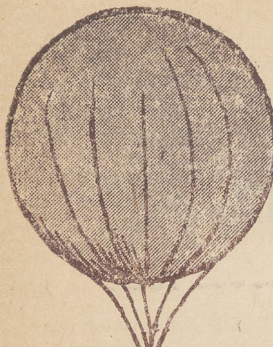
우리들의 머리와 손으로

1. 《아이구 무거워라! 한해'동안 애쓴 보람이 있어》 쟁반처럼 크고 둥근 해바라기를 거두게 된 옹진 고급 중학교 소년단원들.

2. 순천 제1중 학교 대 소년단원들이 치는 피마주 누에는 벌써 녁잠을 자고 있다. 《이번에도 한 장에서 8kg의 고치는 문제 없이 딸 수 있어!》 하고 조 정숙 동무는 자랑 삼아 이야기한다.

3. 소년단원들은 배운 지식을 실지 실험과 실습을 통해 더 잘 익히고 있다. 자기들의 머리와 손으로 교편물을 만들고 있는 개성 고급 중학교 대 소년단원들.

소년단

조선 민주 청년 동맹 중앙 위원회 소년 잡지

1958년 11호 내용

조국이 베풀어 준 이 은혜 배움으로 보답하자!

一九五八년 一一월 一일부터
중등 의무 교육제 실시!

날마다 시간마다 기쁨과 행복만이 늘어 가는 우리 나라에는 또 하나의 기쁜 일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오는 11월 1일부터 중등 의무 교육제가 실시되며 또 앞으로 4~5년 내에 기술 의무 교육제까지 실시하게 된다는 그것입니다.

지난 10월 1일부터 2일까지 사이에 진행된 최고 인민 회의 제 2 기 제 4 차 회의에서 바로 이 법령이 채택된 것입니다.

이미 우리 나라에서는 1956년부터 초등 의무 교육제가 실시되여 모든 어린이들이 훌륭한 학교들에서 행복하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또 다시 모든 어린이들이 중 학교를 의무적으로 다니게 되였으며 앞으로 4~5년 내로는 기술 학교까지도 의무적으로 다니게 되였습니다. 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까!

이번에 중등 의무 교육제를 실시하면서 나라에서는 애국 렬사의 유자녀들과 나라의 방조를 받고 있는 일부 공민들의 아들 딸들에게는 교과서와 학용품까지도 거저 내주기로 하였습니다. 이리하여 인민 학교를 졸업한 모든 어린이들은 아무 근심 걱정 없이 무료로 중등 교육을 받게 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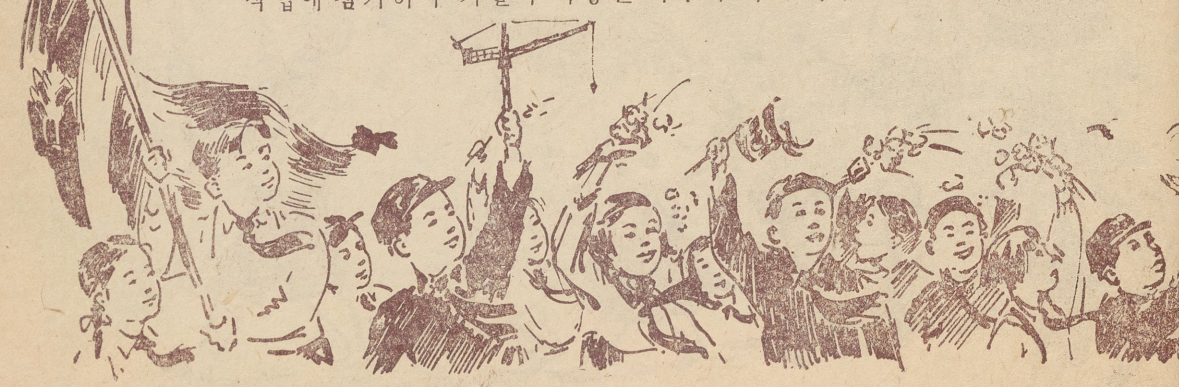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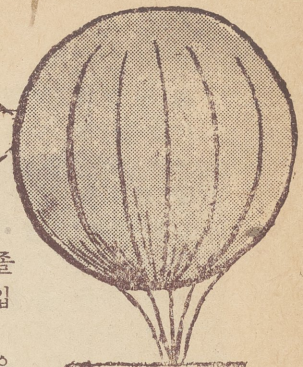
지금 사회주의를 건설하고 있는 우리 나라에서는 인민 경제의 모든 부문을 더욱 빨리 발전시키며 더 많은 생산을 내여 빨리 사회주의 건설을 완성하기 위해 제 1 차 5개년 계획을 1년 반 앞당겨 완수하기 위한 투쟁이 힘차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주의 건설을 더 빨리 완성하고 공산주의의 빛나는 언덕에 올라서자면 우리 나라 인민 경제의 모든 부문을 더욱 높은 기술로 장비해야 하며 따라서 기술을 소유한 사람이 무한히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라에서는 우리 나라 근로자들의 일반 지식과 기술 수준을 높이기 위한 모든 대책을 실시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또 초급 중 학교 졸업생들을 위한 기술 학교를 설치하며 앞으로 4~5년 안으로 2 년제 기술 의무 교육제까지 실시할 준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 기술 학교들로서는 농업 학교, 각종 공업 학교, 상업 학교, 림업 학교, 수산 학교 등인데 이것은 도시와 농촌, 어촌, 림산 구역 등에 몇 개 리에 1교씩 설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건이 갖추어진 곳에서는 1959년도부터 기술 학교들을 개교하게 됩니다.

이 기술 학교들에서는 공작실, 실습 공장, 시험 포전 등이 설치되며 또한 공장, 기업소, 국영 농목장, 농업 협동 조합, 어장 등 생산 현장에 나아가 직접 작업에 참가하여 기술과 기능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리하여 앞으로 우리 나라의 모든 어린이들은 중 학교와 기술 학교를 졸업하여 훌륭한 과학 지식과 기술을 소유한 나라의 보람찬 건설자로 될 것입니다.

지난날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들이 학교라군 문 앞에도 못가 보고 갖은 압박과 천대 속에 살아 온 것을 생각하면 우리들이 오늘 지닌 이 커다란 행복은 무엇에도 비길 수 없는 자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은 오직 김 일성 원수님과 조선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의 은혜입니다.

본래 중등 의무 교육제는 제 1 차 5 개년 계획 말에 가서 실시하게 되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과 정부의 옳은 령도 밑에 천리마를 탄 기세로 사회주의를 건설하고 있는 오늘 우리 나라는 벌써 중등 의무 교육제를 이처럼 3 년이나 앞당겨 실시할 수 있는 모든 힘을 갖추게 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 나라 방방 곡곡에는 벌써 당과 정부의 옳은 령도 밑에 나라와 인민들의 힘으로 학교가 많이 일어섰고 학생 수가 해마다 늘어 금년 9월에는 벌써 인민 학교 졸업생 전부가 초급 중 학교에 올라 가게 되였던 것입니다.

실로 우리 나라에서 중등 의무 교육제가 실시된다는 것은 우리 나라 력사에서 뿐만 아니라 아세아의 다른 나라 력사에서도 아직 있어 보지 못한 일이며 더우기 기술 의무 교육제를 실시한다는 것은 그 누구도 해 보지 못한 일입니다.

이것은 김 일성 원수님과 조선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의 령도를 받는 조선 인민의 자랑이며 빛나는 승리인 것입니다.

오늘 미제와 리 승만 역도들의 《통치》하에 있는 남조선에서는 수 많은 어린이들이 학교라고는 문 앞에도 가 보지 못하고 거리를 헤매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제와 리 승만 역도들이 전쟁 준비에만 미쳐 날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남조선의 학교들은 날마다 문을 닫고 있으며 문화는 여지 없이 파괴되여 가고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 남조선에서는 미제와 리 승만 역도들을 반대하는 인민들의 투쟁이 날을 따라 높아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등 의무 교육제를 실시하며 기술 의무 교육제를 준비한다는 것은 남반부 인민들의 투쟁을 무한히 고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 문화 혁명과 기술 혁명을 완성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앞당기게 될 것이며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건설을 더욱 앞당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 소년단원들은 당과 정부가 베풀어 주는 이 산같이 높고 바다처럼 깊은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더욱 꾸준히 배우고 배우고 또 배워 나아갑시다.

꼬마 수력 발전소

자강도 위원군 위성 중 학교
대위원장 리 명환

얼마전 우리 학교 대에서는 《꼬마 5개년 계획》 활동의 하나로 꼬마 수력 발전소를 건설하였습니다. 나는 이제 그 경험 몇 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지난 초여름 물리 시간이였습니다. 선생님은 우리들에게 전기를 얻기 위하여 물의 힘을 어떻게 리용하는가 하는 재미 있는 이야기를 들려 주셨습니다. 그 후부터 우리는 항상 생각했습니다. 《학교 곁을 흐르는 저 개울물로 전기를 일굴 수 없겠는가?》고.

이런 의견에 어떤 동무들은 비웃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발전소를 만든단 말이냐, 그런 일은 큰 기술자들도 힘들어 할텐데 터무니 없는 공상을 하는구나.》

그러나 해 보자고 대담하게 나서는 아이들이 더 많았습니다. 교과서에서 배운 것을 실지 해보는 일인데 기술자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뭘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것이였습니다.

그러나 이 깊은 산간에서 자재는 어데서 구하며, 실패하면 어떻게 하겠는가 하고 반대하는 동무들도 적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수 동무들은 어떤 일이든지 곤난이 없는 일은 없다고 하면서 대담하게 해 보자고 결심했습니다.

날이 지나면서 점차로 전기에 대한 우리의 지식은 깊어 갔습니다. 우리는 차츰 전기에 대해 자신을 가지게 되였습니다.

얼마 후 우리들은 꼬마 수력 발전소를 직접 만들 것을 대 위원회에 제기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의견은 소년단 지도원 선생님과 교장 선생님에게도 알려지게 되였습니다.

《배운 지식을 실천해 보는 것은 아주 좋은 일입니다. 학교에서도 힘껏 도와 줄 테니 해 보십시오.》 하고 교장 선생님은 우리를 고무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소년단 지도원 선생님도 좋은 의견이라고 우리들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학교 대 《꼬마 5개년 계획》에는 꼬마 발전소 건설도 포함되게 되였습니다.

☆준 비

선생님의 방조를 받으면서 꼬마 설계가들은 꼬마 발전소 설계도를 만들었습니다. 한편 우리 대 위원회에서는 이들을 도와 주기 위해 이 곳에서 멀지 않은 독로강 발전소 견학도 조직했습니다. 독로강 발전소 기술자 아저씨들은 원대한 독로강 발전소 설계도를 펼쳐 놓고 그 전망에 대해 이야기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꼬마 발전소 설계도를 아저씨들에게 보여 드렸습니다.

우리의 설계도를 보신 한 기술자 아저씨는 빙그레 웃으시며 《기특한 일입니다. 해 보십시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많은 유익한 이야기를 들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꼬마 발전소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재까지 선물로 주셨습니다.

견학에서 돌아 온 우리는 더 큰 신심을 가지고 아직 부족한 자재 수집에 나섰습니다. 군 소재지에서도 60 여 리나 떨어져 있는 이 깊은 산'골에서 발전소 건설 자재를 얻는다는 것은 힘든 일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일요일이면 군에까지 달려나가 자재들을 모았습니다. 이렇게 되자 온 마을이 우리 일을 기특히 생각하고 도와 주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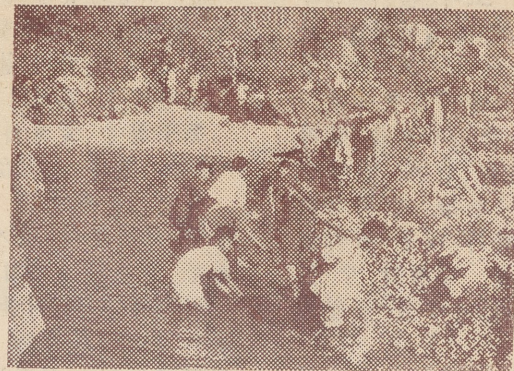
얼마 후 군 당 위원장 선생님은 우리에게 전구 10 개를 선물로 보내 주셨습니다. 뒤'이어 농업 협동 조합에서는 제일 중요한 발전기를 보내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을 어머니, 아버지들도 전선, 피대 등 여러 가지 자재들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기타 필요한 자재들은 우리의 손으로 직접 만들었습니다. 기술이 필요한 회전 바퀴는 조합 농기구 수리소에서 일하는 리 길정의 아버지의 방조를 받아 만들었습니다.

《준비는 다 되였다. 이제는 만드는 일만이 남았다.》 하고 동무들은 기뻐하였습니다. 그러나 힘든 일은 이제부터 입니다. 개울을 막고 동'둑을 쌓아 물을 끌어 올려야 했습니다. 처음에 우리들은 돌을 날라다 둑을 쌓았습니다. 그러나 물은 자꾸만 새여 좀체로 고이지 않았습니다. 비가 오면 애써서 쌓아 올린 둑은 무너졌습니다.

이에 락심한 신 우기, 강 종근 동무들은 《우리가 무슨 발전소를 만든다고 그러니, 집어 치우자.》하고 반대해 나섰습니다. 이때 우리 열성자들은 동무들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전쟁 후 일떠선 모든 공장, 광산은 모두 로동자 아저씨들의 인내성 있는 로력과 난관과의 투쟁의 결과이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중 로력 영웅 김 직현 아저씨와 기타 로력 영웅들의 이야기도 해 주었습니다. 그 순간 우기와 종근이는 말이 없었습니다. 이 동무들은 조그만한 난관 앞에서 주저앉으려고 한 자신을 수치스럽게 생각하면서 다시 열성껏 일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물도 새지 않고 무너지지도 않는 뚝을 쌓을 수 있을가? 하는 것을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던 끝에 흙을 날라다 바르기도 하고 바위에 돋은 이끼 떼를 벗겨다 씌우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는 물이 새지 않도록 있는 힘을 다했습니다.

우리의 열성에 감동된 조합 아저씨들은 굵은 나무를 찍어다 동발까지 매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얼마 후에는 아주 튼튼한 언제를 건설해 놓았습니다. 이 밖에도 우리들은 벼랑을 깎아 내고 발전소를 세웠고 특히 신 우기, 현 웅기 동무들은 몇십 리 밖에서 전주'대를 찍어다 전주까지 세웠습니다.

우리들은 오직 우리의 손으로 전등'불이 켜질 그 순간을 생각하고 더욱 용기를 내여 일을 진척시켜 나갔습니다. 이리하여 발전소는 계획보다 훨씬 빨리 일어섰습니다.

☆실 패

이제는 주로 ㄲ마 기사 (물리 크루쇼크원)들이 할 일만이 남았습니다. 그들은 회전 바퀴를 맞추고 피대를 감았습니다. 발전기도 제 자리에 놓였습니다. ㄲ마 기사들은 뻰치를 들고 전주를 따라 전선을 늘여 놓았습니다. 이것은 학교 실험실, 교원실, 수직실, 관리 위원회에까지 뻗어 나갔습니다. ㄲ마 기사들은 가끔 의문이 생기면 물리 교과서를 뒤적이며 《음전기, 양전기…》 하고 중얼거리기도 했고 그래도 모르겠으면 선생님에게 달려가 해명받기도 했습니다.

드디여 발전소는 건설되였습니다. 우리는 준공식을 앞두고 시험에 착수하였습니다. 물이 소리를 내며 언제를 넘어 오자 회전 바퀴는 물의 힘 으로 힘있게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피대'줄로 련결된 발전기도 돌아갔습니다. 우리들은 울렁거리는 가슴을 안고 실험실에 모여 앉아 전등만 바라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불은 오지 않았습니다. 모두의 얼굴들은 실망의 기색으로 변하였습니다. 크루쇼크원들은 급히 이곳 저곳을 살펴 보았습니다. 그러나 원인은 알 수 없었습니다. 선생님은 발전기를 한참 살피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배운 지식을 잘 생각해 보면 이 원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원인은 반드시 동무들이 찾아 내야 합니다.》

동무들은 다시 교과서를 펼쳐 들고 그 원인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원인은 쉽게 찾을 수 없었습니다. 드디여 물리 크루쇼크원 김 인수가 《알았다. 우리는 고선 련결법을 잊었댔다!》하고 웨치다 싶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안도의 숨을 내 쉬였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들은 다시 선을 제대로 련결시켰습니다. 그래도 불은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밤이 늦도록 모여 앉아 실패의 원인을 찾기 위해 애썼습니다. 그러나 원인은 알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리 종호가 말했습니다.

《얘들아! 선생님을 찾아 가자!》

그리하여 동무들은 그날 밤으로 선생님을 찾아 갔습니다.

한참 발전기를 이모 저모 살펴 보시던 선생님은 빙그레 웃으시며 말씀했습니다.

《배운 것을 잊어 먹었군》하시며 실패의 원인이 발전기가 반대로 놓였기 때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ㄲ마 기사들은 너무도 기쁜 김에 만세까지 웨쳤습니다.

☆성 공

드디여 손꼽아 기다리던 날은 왔습니다. 발전소를 돌리는 순간이 찾아 온 것입니다. 아침부터 학교에는 많은 부모님들이 오셨습니다. ㄲ마 기사들은 다시 모든 설비를 점검하였습니다. 긴장된 속에 발전기는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순간 학교 실험실 문에서 반짝 불'빛이 흘러 나왔습니다.

《만세! 만세!》

동무들은 꽃보라를 뿌리며 테프를 날리며 꽃다발을 흔들었습니다.

이때 78세인 김 종걸 할아버지는 《아니 어린 아이들이 전기'불을 만들다니 참 희한한 일이다.》하고 감격해 하시였습니다.

이후부터 우리들은 물리 시간마다 우리들이 만든 전기로 여러 가지 실험을 하게 되였습니다. 선생님은 우리들의 이름을 부르시고 전기의 원리에 대한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자신 있는 소리로 척척 대답합니다.

누가 질문에 대답 못할 동무가 있겠습니까! 자기 손으로 발전기를 만들어 냈는데…

☆ **사진 설명**

4페지—ㄲ마 발전소 준공식

5페지—물을 끌어 올리기 위해 개울을 막는다.

새 나라의 아들 딸답게

신의주 교대 부속 중 학교 대 } 에서
신의주 녀자 고급 중 학교 대 }

본사 기자 { 리 종 근 / 최 화 규 }

☆ 웃 어른을 존경하며 동생들을 사랑하자!

신의주 교원 대학 부속 중 학교 대 제 3 분단은 초급반 2학년 분단입니다.

본래부터 이 분단은 례절이 바른 분단으로 칭찬을 받아 왔습니다.

새 학년에 들어 오면서 분단은 전체 소년단원으로 하여금 사회주의 새 사회에서 사는 소년답게 참된 품성을 지니게 하기 위한 사업으로 우선 웃어른들을 존경하며 동생들을 사랑하는 일을 중요한 사업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리하여 분단 위원회는 우선 《웃어른들을 존경하고 동생들을 사랑하며 례절이 바른 소년단원이 되자.》는 모임부터 준비하기로 하였습니다.

분단에서는 준비를 잘 했습니다.

이들은 먼저 소년단원들이 알아야 할 례절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부터 알려 주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분단 계획에서는 9월 15일까지 저마다 《붉은 꽃초롱》이라는 수첩을 만들고 하루 한 가지 이상씩 좋은 일을 하고 적어 넣기로 하였으며 9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는 도덕 교양을 내용으로 한 소설,

《어머니! 학교에 갔다 오겠습니다》

동화, 이야기 등 다섯 가지 이상을 읽고 이야기 모임을 가지기로 되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9월 25일에는 김 일성 원수님의 어린 시절을 연구하기 위하여 《만경대》에 대한 감상 모임도 가지기로 하였습니다.

9월 말까지 각 반들에서는 마을에 계신 할아버지를 모시고 례절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로 되였으며 9월 28일에는 영예 군인 작업소를 찾아 가서 아저씨들을 도와 드리는 일도 계획에 넣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10월 1일에는 항일 애국 투사들을 모시고 혁명 투사들의 고상한 도덕 품성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분단에서는 10월 1일까지 벽보, 그림판 등을 만들고 소년단원들의 도덕 품성에서 나타난 좋은 일과 나쁜 일들을 대비하는 그림, 만화, 사진 등을 붙이기로 하였습니다.

분단에서는 이런 일이 계획 대로 차근차근 잘 진행되였습니다. 분단 동무들은 이런 일들을 통하여 여지껏 모르고 있던 례절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되였습니다.

특히 《만경대》에 대한 읽은 책 이야기 모임 때 동무들은 많은 것에 대하여 말했습니다.

이러한 준비를 거친 뒤에 분단은 모임을 조직하였습니다.

이 분단에서는 모임을 한 주일에 두번씩 했습니다. 의논하는 문제는 례절에서도 여러 가지를 나누어 적은 한 문제씩 의논했습니다. 그리하여 주일마다 모임에서 의논한 것을 지키도록 하였습니다.

첫 모임에서 의논한 것은 《인사성이 밝은 소년단원이 되자.》였고 두번째 모임에서는 《인민반 1, 2 학년 어린이들을 사랑하며 도와 주자.》였고 다음에는 《거리에서 어른들이 길을 물으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자!》였습니다.

모임이 시작된 후부터 소년단원들 속에서는 훌륭한 일들이 날마다 늘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리 자량 동무는 조선에서 떠나는 중국 인민 지원군 아저씨들을 환송하러 나갔다 돌아 오는 길에 길'가에서 울고 있는 어린 아이를 만났습니다. 해는 지고 어둑이 깃들 무렵이였습니다. 그는 우는 아이를 업고 달래며 여러 곳을 찾아 다니면서 집까지 찾아다 주었습니다. 기특한 일은 나날이 늘어만 갔습니다.

☆ 길'가에서

어느 일요일입니다. 신의주 녀자 고급 중학교 대 17 분단에서는 거리를 한 바퀴 돌아 오는 《거리 일주 려행》을 조직했습니다.

분단 동무들을 네 패로 나누어 한 패는 도 인민 위원회 앞으로부터 농민 시장 쪽으로, 다른 한 패는 역전 거리로, 세번째 패는 도 민청 앞 옛날 거리로, 네번째 패는 골목골목 길로 향하여 떠나기로 했습니다.

이에 앞서 분단에서는 동무들에게 수첩과 연필을 갖추게 했습니다. 그들은 거리를 돌아 다니면서 교통 도덕에 위반되는 일이 어떤 것이며 질서를 지키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생길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보고 수첩에 적기로 했습니다.

네 패는 줄을 지어 《려행》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거리에서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보게 되였습니다.

길'가에서 공을 차는 소년단원들, 단추 채우지 않고 다니는 동무들, 거리 복판으로 다니는 동무들, 자동차가 다가 오는데 앞길을 뛰여 건너는 동무들, 왼쪽으로 걸어 오다 부딪치는 일, 네댓명 씩 옆으로 줄을 지어 걷기 때문에 뒤에 오는 사람들에게 방해되는 일, 거울을 가지고 길 가는 사람들에게 해'빛을 반사시키며 좋아하는 일… 동무들은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자기들을 반성하였습니다.

자기에게 그런 일이 있었던 동무들은 마치 자기를 비판하는 일처럼 생각되여 얼굴을 붉히기까지 했습니다.

《거리 일주 려행》에서 돌아 온 그들은 곧 모임을 열고 거리에서 보고 느낀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하여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거리에서 지켜야 할 도덕이 어떤 것인가, 교통 질서를 왜 지켜야 하는가 하는 이야기들도 나왔습니다.

《거리 일주 려행》은 그들에게 많은 것을 배워 주었습니다.

이것이 17 분단 동무들이 사회 질서와 군중 도덕을 지키기 위해 조직한 준비 사업이였습니다.

준비 사업을 끝내인 이 분단에서는 모임을 하기 위하여 고급반 민청 형님들에게 부탁해서 그림극 《길'가의 두 동무》를 만들었습니다.

첫 모임에서 이 그림극을 분단 동무들에게 보여 주었습니다.

그림극은 두 소년단원이 길'가에서 공을 차면서 교통 질서에 방해를 주는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분단 동무들은 이 그림극을 통하여 자기에게는 이런 일이 없는가고 돌이켜 보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길'가에서 공차기를 잘하는 김 학찬 동무까지 자기 스스로 잘못을 뉘우치고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그는 마치 이 그림극이 자기를 놓고 비판하는 것이라고 하며 다시는 길'가에서 공을 차지 않겠노라고 다짐했습니다.

이 분단에서는 인민반 분단이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그림을 통하여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갈라 내게 하며 자기들의 그릇된 행동을 고치도록 한 것입니다.

모임은 이렇게 일주일 한두 번씩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들의 분단에서는 자랑스러운 이야기가 꼬리를 물고 나오게 되였습니다.

☆《분단은 앞으로!》

이것은 신의주 녀자 고급 중 학교 대 4분단 동무들이 《학교의 물건을 내 것과 같이 사랑하자!》라는 모임이 한창 진행되고 있을 때 생긴 일입니다.

상학 시간까지는 아직 시간 반이 남아 있었는데 누군가 교실 문을 열었습니다. 그 소리에 수직섰던 분단 지도원 선생님이 교실로 가 보았습니다. 그는 4반에 있는 김 용이 동무였습니다.

《일찌기 왔는걸!》하고 선생님은 용이를 지켜 보았습니다. 책가방을 책상에 놓은 용이는 방'바닥을 쓸고, 닦고 혼자서 책상을 정돈하고 책상 우까지 깨끗이 걸레질 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용이에게는 말하지 않고 이 사실을 분단 열성자들에게 알려 주었습니다.

선생님에게서 이 이야기를 들은 분단 열성자들은 감격했습니다.

《학교의 물건을 내 것과 같이 사랑하자!》는 분단 모임이 그를 이렇게 좋은 일을 하게 했던 것입니다.

분단에서는 작은 것으로부터 큰 것으로 문제를 넓히면서 한 문제 한 문제에 대해 칭찬하는 방법으로 모임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동무들도 그들의 본을 받아 좋은 일을 더 많이 하고 그릇된 점은 제때에 고쳐 가도록 했습니다.

분단 열성자들은 우선 자기들 스스로가 모범이 되여 분단 동무들을 교양하기로 의논했습니다. 그리하여 처음에는 자기 주위에 있는 책상, 걸상, 교실, 칠판 등을 아끼고 사랑하는 모범을 보이였습니다. 열성자들은 방과후는 물론 때로는 일요일에도 학교에 와서 손수 책상도 고치군 하였습니다.

《울타리도 우리의 손으로》

또는 아침 일찌기 청소 당번 보다 먼저 나와 청소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열성자들은 분단 동무들이 조그마한 좋은 일이라도 생기면 벽보에 널리 소개했고 모임에서는 칭찬했습니다.

김 용이 동무가 이 날 아침 일찌기 나와 청소한 것은 열성자들 뿐만 아니라 분단 동무들에게도 기쁜 일이였습니다.

이런 일은 날이 갈수록 더욱 늘어 갔고 이것은 응당히 해야 하는 일로 알게 되였습니다.

림 창준, 최 경하 동무들도 용이의 뒤를 이어 아침 일찌기 청소를 해 놓았습니다.

청소에서 이런 아름다운 일이 생기게 되자 자연히 청소 당번은 필요가 없게 되였습니다. 분단 열성자들은 즉시 《우리 분단의 자랑》 이라는 모임을 열고 청소 당번이 없어지기까지의 자랑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하여 분단의 결정으로 분단의 청소 당번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분단 동무들의 제의에 의하여 분단의 벽보를 《분단 앞으로!》 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모임에서 의논되는 내용은 차차 교실에서 학교로,학교에서 마을로 퍼져 갔습니다.

이와 보조를 맞추어 벽보 《분단 앞으로》도 범위를 넓히게 되였습니다.

얼마전 벽보 《분단 앞으로!》 에는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분단에는 뜻밖의 일이 생겼습니다.

월요일 아침 학교에 나온 동무들은 달라진 교실을 보고 모두 놀랐습니다.

《웬 일이냐! 하루 동안에 누가 이렇게 벽을 칠했을가?》

신기로운 일입니다. 교실 둘레에는 한 메터 가량 높이로 아름다운 진흙색이 칠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 뿐이 아니야, 이걸 봐 책상도 고쳐졌어!》

살펴 보니 정말 책상, 걸상들도 말끄럼히 고쳐졌습니다.

동무들은 누가 이런 좋은 일을 했는가고 서로 얼굴만 쳐다 보았습니다.

나중에 교실에 들어 온 것은 최 등현 동무였습니다. 분단 동무들은 그가 했으리라고는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얘! 등현아 누가 이 교실 벽에 칠했는지 모르니?》그에게서라도 혹시 알 수 있을련지 하고 누가 물었습니다.

등현이는 빙긋 웃기만 하면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했니?》 동무들은 다구쳐 물었습니다.

등현이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이였습니다.

《야!》 분단 동무들은 약속이나 한듯이 박수를 치며 기뻐했습니다.

등현이는 분단의 말썽꾸러기였습니다.

그는 사회주의 도덕 품성을 키워 나갈데 대한 분단 모임이 여러 차례 진행되였어도 좀체로 자기 잘못을 고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등현이도 이제는 분단 모임과 동무들의 모범을 통해서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다른 동무들처럼 사회주의 새 사회에서 사는 소년단원답게 행동해야 되겠다는 것을 느꼈던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일들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결함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 혼자서만 좋은 일을 하려고 하며 분단 전체가 힘을 합해 하려는 노력이 부족한 그것이였습니다.

분단에서는 건설장,공장 견학을 조직했습니다. 여기서 사회주의 건설자들의 집단적 혁신 운동을 견학했습니다.

분단은 이 견학을 통하여 소년단원들에게 좋은 일도 분단 전체가 동원된다면 혼자의 힘보다 몇 십배나 더 큰 성과를 거둔다는 것을 깨우쳐 주려고 하였습니다.

림산 제재 공장을 견학갔을 때 이들은 민청 브리가다장 박 영묵 형님께서 훌륭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느 한 민청원 형님은 목재를 절약하기 위하여 두터운 톱을 얇은 톱으로 바꾸어 톱이 먹어 없어지는 넓이를 주리는 운동을 일으켜 계획 외에 1, 100 조의 책상과 걸상을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들려 주었습니다.

그 후 분단에는 차츰 자기가 생각한 좋은 일에 전체 동무들을 끌어 들이는 일들이 생겨 났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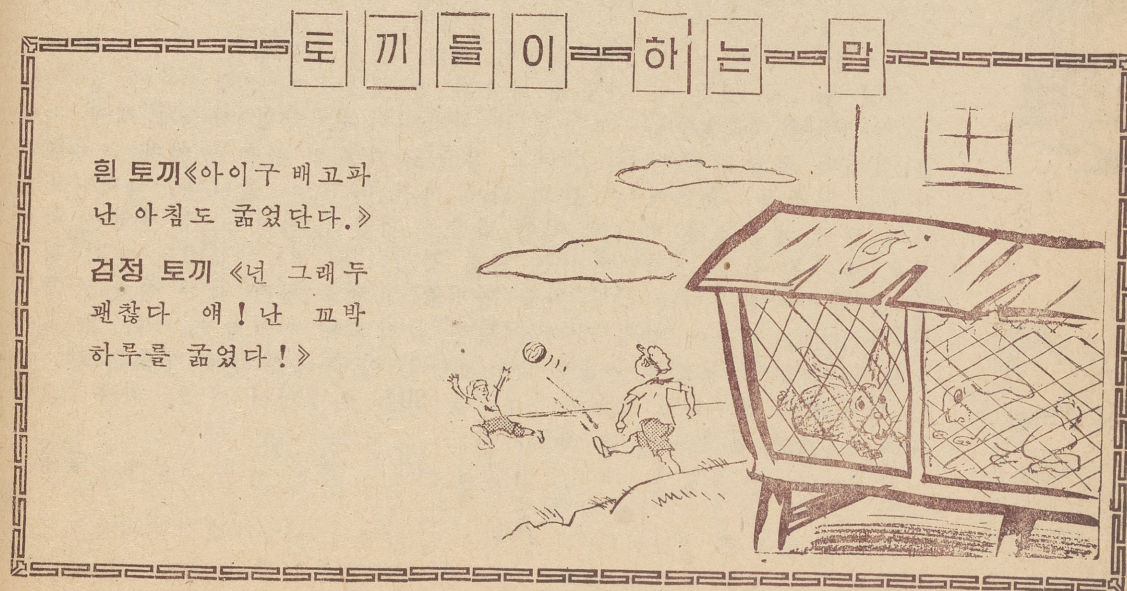
제 2 반 동무들이 공원에 가서 울타리를 고쳐 놓은 일이며 제 4 반 동무들이 인민반 1, 2 학년에 가서 그들의 책상 걸상을 고쳐 준 일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거리를 돌아 다니며 락서를 지운 반도 있었습니다.

한 번은 분단 동무들이 학교에 어울리게 변소도 훌륭히 개조하자는 의견을 내놓고 일요일을 리용해서 변소 개조 사업도 훌륭하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4 분단 동무들에게는 좋은 일들이 나날이 늘어 갑니다.

《분단 앞으로!》 라는 벽보 이름 그 대로 분단은 더욱 힘차게 앞으로 전진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신의주 교원 대학 부속 중 학교 대와 신의주 녀자 고급 중 학교 대에서는 민청 중앙 위원회 제 6차 전원 회의에서 의논된 내용을 훌륭히 실행하며 소년단원들 속에서 사회주의 도덕 품성을 훌륭히 키워 나가고 있습니다.

토끼들이 하는 말

흰 토끼《아이구 배고파 난 아침도 굶었단다.》

검정 토끼《넌 그래두 괜찮다 얘! 난 꼬박 하루를 굶었다!》

배우면서 일하면서 사회주의 건설을 더 잘 돕자!

민청 중앙 위원회 학생 소년부

부부장 최 윤 호

소년단원 동무들! 지난 9월 교육 문화성과 민청 중앙 위원회에서는 조선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의 두터운 배려 속에서 행복하게 자라는 학생들의 교육 교양 사업에서 생산과의 련계를 강화할 데 대한 공동 지시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공동 지시는 학습과 생산 실습을 훌륭히 배합하여 나라 일도 돕고 학습의 질도 높이고 로동도 사랑할 줄 아는 실로 조국의 사회주의 건설에 쓸모 있는 새 세대로 자라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동 지시가 발표되자 순천 제 1 중 학교를 비롯한 우리 나라의 모든 소년단원들은 이를 한결 같이 지지하고 거기에 내세운 계획을 넘쳐 실행할 것을 결의해 나섰습니다.

평양시 내 소년단원들은 자기들에게 맡겨진 계획보다 토끼는 거의 10배, 피마잠 고치는 2배 이상, 피마주는 7배 반이나 생산할 것을 의논하고 계획 세웠습니다. 이에 뒤'이어 우리 나라의 모든 소년단 단체들에서는 지난날의 《피마 5개년 계획》활동을 총화하고 1959년도에 할 일을 의논하는 모임들이 진행되였으며 훌륭한 계획들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금첫 시작이며 계획을 세워 놓은데 지나지 않습니다. 실지 사업은 이제부터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사업을 훌륭히 해낼 수 있을가요?

제일 주요한 것은 이 사업을 학습과 잘 결부시켜 진행하여야 합니다. 《피마 5개년 계획》활동—그것은 곧 학습입니다. 수업 시간에 배운 지식을 실험과 실습을 통하여, 그리고 가축을 기르고 누에를 치며 농작물을 다루는 일들을 통하여 더 깊고 넓게 다져 나가야 합니다. 그러니만큼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한다고 하여 학습을 게을리 하거나 이 사업을 학습과는 별다른 일로 생각하여서는 안될 것입니다. 《피마 5개년 계획》활동을 잘 함으로써 우리는 낡은 학습 방법을 고치고 실지 생산 실습을 통하여 산지식을 배우며 학업 성적을 훨씬 높이도록 하여야 합니다.

강서 제 1 중 학교 3 분단에서는 토끼를 아주 훌륭하게 기름으로써 지난 학년도에 락후하던 생물과 성적을 80% 이상이나 우등, 최우등으로 되게 한 좋은 실례도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사업은 소년단원들의 재능과 재간 있는 솜씨를 훌륭히 키워 나가는 것으로 되여야 하겠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무엇이나 자기 힘으로 만들어 보고 하나이라도 깊이 생각하여 그것을 실천해 보는 것은 참으로 주요한 일입니다. 순천 1 중 1 분단 동무들은 토끼를 기르면서 토끼의 특징과 생활 습성을 잘 관찰하고 연구함으로써 옛날 늙은이들이《토끼가 새끼를 낳을 때 사람이 보면 낳은 새끼를 다 잡아 먹는다》는 비과학적 이야기를 깨우쳐 주었으며 토끼 새끼를 많이 낳는 방법과 잘 키울 수 있는 훌륭한 경험들도 얻게 되였습니다. 또한 자강도 내 소년단원들은《피마 발전소》를 만들고 가까이에 있는 농민들에게 전기를 보내 주고 있으며 수안 고중 초급반에서는 면화, 옥수수를 비롯한 16 종의 곡식을 새 농사법으로 심어 높은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다음에는 소년단원 동무들로 하여금 로동에 대한 옳은 태도를 가지도록 하여야 합니다. 《피마 5개년 계획》활동의 하나하나가 소년단원들에게 로력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가를 알게 하여 주며 실지 로동에 참가함으로써 로동을 사랑하는 참된 일'군으로 자랄 수 있게 하여 주는 것입니다.

지난날 소년단원들은 폐품을 모으고 가축을 기르며 식물을 재배하고 산채와 약초를 뜯어 그것으로 나라에 《소년호》기관차와 기중기를 증정하였습니다.

이 밖에 평북도 내 소년단원들은 가물과의 투쟁에 떨쳐 나서 1,400여 평의 밭에 물을 주었고 무리에 맞아 떨어진 곡식을 140 톤이나 주었습니다. 이리하여 국가에 많은 리익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소년단원들에게 로동이란 얼마나 고귀한가를 직접 체험하게 하였으며 로동을 사랑하는 정신으로 교양 하였습니다.

토끼를 기르는 것과 피마잠을 치는 것도 목적은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년단 단체들은 소년단원들을 로동에 참가시킬 때는 그들을 어떻게 교양할 것인가를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래년에도 《피마 5개년 계획》활동을 더 잘하기 위한 물샐틈 없는 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토끼집을 짓고 어미토끼와 토끼 사료를 마련하며 피마주와 해바라기 종자를 준비하며 토끼 기르는 방법과 누에치는 지식을 배우는 등 여러 가지 준비 사업을 미리부터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마 5개년 계획》활동은 소년단 사업에서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러므로 일부 학교 대들에서 처럼 이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여 되는 대로 해치우려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소년단 단체들에서는《피마 5개년 계획》활동을 잘 할데 대하여 자주 의논하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때때로 총화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잘 못된 점들이 나타나면 빨리 고치도록 하며 소년단원들 속에서 일어나는 좋은 경험들은 제때에 널리 모범 받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반과 반, 분단과 분단, 또는 다른 학교들과의 경쟁도 체결하면서 소년단원들의 온갖 열성과 창발성을 불러 일으켜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소년단 사업이 더 흥미 있고 활기 있게 될 것이며 소년단은 더욱 튼튼한 조직으로 될 것입니다.

독자 동무들에게!

본호 14~15페지에서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보충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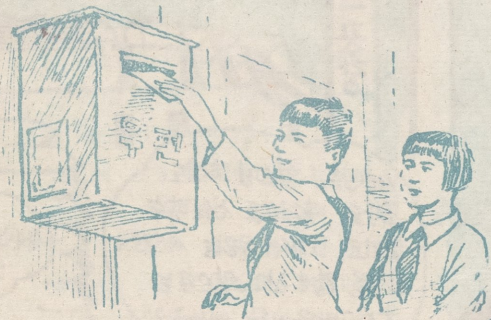
☆ 14페지…금속 공업 부문에서 앞으로 6~7년내에 도달해야 할 선철과 립철 400만톤과 강철 300~350만톤 생산은 4~5년내에 앞당겨 실행하게 됩니다.

☆ 15페지…농촌 경리 부문에서 앞으로 농촌에서도 1~2년내에 700만톤의 알곡을 생산하게 됩니다.

《소년단 편집부》

6-7 년후에는?
가까운 6-7년 우리 나라
우리는 앞으로 6~7년내에 중요한 생산량에서 전력은 200억 키로와트
시, 석탄은 2,500만톤, 선철과 립철은 만톤, 강철은 300만~350만톤, 화학
비료는 150만~200만 톤, 쎄멘트는 50 은 5억메터, 사탕은 10만 톤, 어획
고는 100만 톤에 이르게 하여야 하겠습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창건 10주년 개회에서 한 김 일성 원수의 기념 보고에서)
우리나라에는 앞으로 이렇게 큰 발전소 뿐만 아니라 농촌에도 많은 소형 수력 발전소들이 생기게되고 중요 도시마다에는 화력발전소가 생기게 되지요 그리하여 200억KW시의 전력을 생산하게 됩니다.
야! 굉장하구나
보십시요! 지금우리들은 9월 전원 회의 정신을 받들고 일떠섰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들의 힘으로 건설할 용광로입니다. 머지않아 우리는 300-350만톤의 강철을 생산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400만톤 립철을 생산하 이제 더 많은 일용품들이
야! 저것봐! 쇠물이다. 쇠물!
쎄멘트 공장
쎄멘트가 없으면 학교도 공장도. 발전소도 건설할수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쎄멘트 공장을 많이 짓고 앞으로는 500만톤이나 생산하게 됩니다.
쎄멘트 산이구나!
아저씨. 저 갱도안을 구경할수 있어요?
이제 전차를 타면 단숨에 갱도안으로 갈수 있어요 앞으로 우리나라 탄광들은 모두 자동화 되여 2.500만톤의 석탄을 캐 내게 됩니다
할아버지! 저건 앞으로 달릴 전기차예요
음…. 거 참 훌륭한 기차군!
우리는 지금 9월전원회의 결정을 받들고 100만정보의 논과 밭에 관개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700만톤 이상의 알곡을 거두게 되며 벼만도 400만톤을 거두게 되지요
때문에 앞으로는 누구나 다 이밥을 먹게되지요 옥수수로는. 기름, 간장, 전분 등을 만들며 사료로도 사용합니다
양수장
방직공장
사탕공장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사탕을 외국에서 사오지 않게 되지요 우리나라에서는 앞으로 10만톤의 사탕을 생산하게 되니까요
이게 모두 사탕이애요?
앞으로 우리나라 방직공장들에서는 5억메터의 천을 짜내게될겁니다 이렇게 되면 한사람 앞에 1년에 50m씩 차례집니다
50m씩이요! 정말 멋지구나
이건 무슨 비료예요?
이건 질소 비료입니다 밖에도 린, 가리등의 학 비료가 있지요 우리는 로 150만-200만톤의 학 비료를 농촌에 보내게 됩니다
소년호
광장한 고기로군!
우리는 가까운 장래에 100만톤의 물고기를 잡게 된단다.
그림 리춘수

두 장의 편지

얼마전 평양 제 40 중학교대 년단원들은 일본 오무라 수용소에 억류된 조선 소년들과 편지 교환하였습니다. 아래에 그들이 서로 나눈 장의 편지를 소개합니다.

오무라 수용소에 갇히운 조선 소년들에게

오늘도 조국의 품 속을 한없이 그리며 억울한 철창살이를 반대해 투쟁하고 있는 동무들! 얼마나 고생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라지오와 신문, 잡지를 통하여 동무들의 억울한 생활을 들을 때마다 격분을 참을 수 없습니다. 자기 조국에 돌아 오려는 정당한 요구를 미제와 그 앞잡이 놈들이 가로 막고 있으니 어찌 분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조국은 조선 로동당의 령도하에 날에 날마다 사회주의 락원을 향하여 천리마의 기세로 내달리고 있습니다. 이 곳 평양의 거리마다에는 화려한 건물들이 즐비하게 들어차고 거리의 스피카에서는 행복의 노래'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이 행복과 기쁨 속에서 우리는 마음껏 배우며 나라의 사회주의 건설을 도와 《교마 5개년 계획》활동을 진행하면서 앞날의 기사로, 건축가로, 훌륭한 사회주의 건설자로 꾸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에는 행복과 기쁨만이 늘어갑니다. 행복한 생활이 늘어가면 갈 수록 우리는 남녘땅의 불쌍한 동무들과 함께 오무라 수용소에 갇히여 있는 동무들 그리고 일본에 있는 모든 우리의 형제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어찌 우리들만이 행복을 누리며 우리들만이 배움의 길에서 즐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같은 선조의 피'줄을 이은 한 민족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행복과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게 되여야 합니다.

우리는 동무들이 조국에 돌아 올 날을 손곱아 기다립니다. 그 날을 위하여 끝까지 투쟁합시다.

그러면 조국에 돌아 오는 날 기쁨의 상봉을 약속하면서 이만 그칩니다.

조선 소년단 평양 제 40 중학교 대
제 1분단 최 성일

평양 제 40 중 학교 1분단 동무들에게

동무들이 보내 준 편지는 감격과 기쁨 속에 감사히 받아 보았습니다.

벅찬 건설이 진행되는 조국 땅에서 행복하게 배우며 뛰노는 동무들의 새 소식은 이곳 수용소에서 억울한 철창 살이를 하고 있는 우리를 한층 고무하여 주었습니다.

생각하면 할 수록 조국의 따뜻한 품 속이 그리워만 집니다.

바로 이 순간에도 나는 한없이 조국의 품 속을 그리며 반드시 조국에 돌아 가고야 말 굳은 결의를 다지고 있습니다.

이곳에 억류된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들은 오늘도 조국 인민들이 보내는 두터운 지지와 성원에 무한히 고무되면서 하루 속히 이 굴욕의 철창 살이를 벗어나 조국에 돌아 가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제의 조종하에 움직이는 일본 기시 정부는 여러 가지 부당한 구실로 우리의 귀국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놈들은 리 승만 괴뢰 정부와 결탁하여 우리를 죽음의 땅, 남조선에 넘겨 주려고 갖은 음모를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조국인 공화국의 품으로 돌아 가려는 우리의 투쟁은 반드시 승리하고야 말 것입니다.

나는 굳게 믿습니다. 놈들의 어떠한 만행이 계속 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조국에 돌아 갈 것이며 조국의 사회주의 건설에 동무들과 함께 참가할 것입니다.

그럼 앞으로도 계속 조국의 새 소식들을 전해 주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며 투쟁의 힘입니다.

1958. 8. 25

일본 오무라 수용소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공민 자치회
차 광자

나는 커서 무엇이 될가?

《나는 직포공이 되렵니다》

신의주는 지금 천리마를 탄 기세로 내달리는 근로자 아저씨들의 손에 의하여 로초 인견 팔프, 스프, 방직, 염색 종합 공장 건설이 한창입니다.

우리 소년단원들은 얼마 전에 아저씨들을 도와 드리기 위하여 공장 건설에 참가할 것을 의논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들은 공부를 마치면 노래를 부르며 건설장에 나갑니다.

우리는 건설자 아저씨들의 일'손을 도와 드리면서 로동의 기쁨을 느끼며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기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터닦기 하는 일, 벽돌, 자재 나르는 일을 열성껏 돕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도 이 웅장한 방직 종합 공장 건설에 이바지된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들은 참으로 기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은 로동이 얼마나 영예로운가를 똑똑히 알게 되였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꼭 우리 고향에 일떠서는 이 훌륭한 방직 종합 공장에서 일할 것을 결심하게 되였습니다.

나는 본래 로동자의 딸입니다. 아버지는 오랜 로동자였습니다. 아버지가 미군놈들의 폭격에 돌아 가신 후 어머니는 아버지의 일을 이어 공장에 나갔습니다. 나는 부모의 영예로운 직업을 이어 받아 로동자 대렬 속에서 사회주의 건설에 이바지할 결의를 굳게 다짐하고 있습니다.

건설장에서 이 공장의 웅장한 건설 모습을 바라 볼 때마다 나는 반드시 이 공장에서 일하겠다는 것을 속다짐 하군 합니다.

8. 15 해방 15 주년 날이면 우리는 명절을 맞는 기쁨과 함께 공장이 완공된 기쁨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년산 3만 톤의 류산염 팔프 공장, 2만 톤의 스프 공장, 면방직 6만추, 직기 2천대를 갖춘 방직 공장, 염색 가공 공장…이 얼마나 웅장하고 훌륭한 공장입니까.

김 일성 수상님은 공화국 창건 10 주년 기념 보고에서 6~7 년내에 천을 5억 메터를 짜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꼭 5억 메터의 천을 생산하는 영광스러운 직포공의 대렬의 한 사람으로 되렵니다.

신의주 교대 부속 중학교 대
2분단 김 춘자

《나는 원예가가 되렵니다.》

성천이라면 누구나 밤 산지로 유명하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참말이지 우리 고향 성천은 밤나무로 해서 더 아름답습니다. 밤꽃 피는 봄날이나 밤송이들이 입을 벌리고 밤 알을 떨구는 늦가을의 풍경은 모든 사람들을 황홀케 합니다. 게다가 지난 해부터는 10만 정보의 과수원을 개간할 데 대한 내각 결정에 의하여 여러 가지 과수 나무들까지 심어지게 되였습니다.

작년 가을 우리 고향에 원예 전문 학교 언니들이 오셔서 협동 조합 아저씨들에게 과수 재배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언니들은 우리 고향에 자라는 매지나무, 복숭아나무, 살구나무 등을 관찰하고 기후를 조사하더니 우리 고향에서는 매지와 사과를 접한 사과 나무를 가꾸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언니들의 관찰과 실험하는 모습을 볼 때 몹시 부러웠습니다. 그래 나는 언니들을 찾아 가서 나도 원예가가 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언니들은 기뻐하면서 나에게 매지와 사과를 접하는 법을 배워 주었습니다. 이 접한 사과 나무는 우리 고향 지방에서 잘 자랄 수 있는 나무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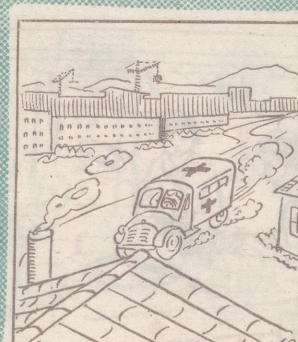
지금 우리 고향에는 접한 사과 나무를 빈틈 없이 심었습니다. 이 심은 나무 들을 정성껏 잘 키운다면 참말 우리 고향 인민들은 과수원 속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이 과수들을 잘 가꾸어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근로자들에게 맛있는 과일을 보내게 된다는 것은 얼마나 보람찬 일입니까. 나는 반드시 내 고향 락원에서 과수 꽃을 피우는 원예가가 되렵니다.

지금 나는 나의 집 정원에 10 여 종의 과수를 심어 놓았습니다. 그리하여 학교 크루쇼크에서 배운 것을 실험해 보기도 합니다.

나는 더 열심히 배우며 일하면서 쏘련의 식물학자 미츄린 선생님과 같은 인민을 위한 훌륭한 원예가가 되렵니다.

평남 성천 제 1 중 학교 대
2 분단 김 정자

비둘기가 물고온 소식

친애하는 독자 동무들 나는 이 한달을 참으로 바삐 날아 다녔어요. 그러나 나는 나의 소식을 기다릴 동무들을 생각하니 조금도 힘든 줄을 몰랐습니다.

동무들! 오늘은 천리마를 탄 기세로 《꼬마 5개년 계획》을 넘쳐 내며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일을 통해서 더 잘 익히기 위해 힘쓰고 있는 소년단원들의 소식을 알려드리겠어요.

평양 23 중 학교 동무들은 금년도 《꼬마 5개년 계획》을 계획보다 수십배나 넘쳐 냈답니다.

암토끼 한 마리가 123 마리로,

피마주는 한포기에서 한말 반으로

해바라기는 한 포기에서 2.5 키로그람을 냈지요. 그러면서 이 학교 동무들은 명년도는 이보다 더 높은 수확을 거두겠다고 다짐하고 있답니다.

나는 가는 곳 마다에서 《꼬마 공장》을 구경했지요. 《꼬마 공장》들에서는 무엇을 하느냐구요? 그건 《꼬마 공장》 기사 동무가 대답해 줄거애요.

《비둘기 동무, 우리 실험실과 공작실에는 없는 도구가 없이 죄다 갖추어 졌답니다. 우리는 지금 수업 시간에 배운 지식으로 직접 물건들을 만들어 내면서 배운 지식을 더 잘 익히고 있습니다. 무쇠도 녹여 보고, 소금도 만들고요!》

이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소년단원들이 손수 만든 《꼬마 발전소》랍니다. 어린 기술자들은 시내'물을 막고 발전소들을 만들었답니다. 이들은 지금 토끼우리, 닭우리, 실습지까지 모두 전기를 보내고 있답니다.

《꼬마 5개년 계획》활동이 시작된지 한 해가 지난 오늘 참으로 많은 훌륭한 열매가 이루워졌지요.

평양시와 강계 소년단원들이 나라에 바친 소년호 기중기며, 평양과 남포를 쉬지 않고 분주히 달리는 소년호 렬차!

이 모든 것들은 공화국 소년단원들이 나라의 사회주의 건설을 돕자고 나선 《꼬마 5개년 계획》 활동을 잘한 보람으로 얻어진 열매이지요.

《얼마나 착하고 기특한 일이애요. 이 동무들은 지금 사회주의 새 나라에 사는 소년단원 답게 참되게 살며 행동하자고 나선 협조대 동무들이랍니다.

이 동무들은 교통 정리원 아저씨들을 도와 드리며 오고 가는 손님들에게 길 안내도 해 드리고 있답니다.

어찌 이것 뿐이겠어요. 소년단원들은 애국 렬사 가족, 인민군 후방 가족들을 자기일처럼 도와 드리며 인민군, 지원군 렬사들의 묘지는 항상 그들의 손으로 아름답게 가꾸어지지요.

소년단원들은 나에게 이런 말을 하여 주었습니다.《우리가 힘을 합해 노력하면 못할 일이 없다》고 참으로 그렇습니다. 티끌 모아 태산이 된다고 130만 명의 소년단원이 힘을 다하면 정말로 훌륭하게 우리의 존경하는 근로자 아저씨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실험과 실습 - 이는 곧 학습이다

평남도 순천 제 1 중학교

소년단 지도원 문 석규

우리들은 지금 근로자 아저씨들이 제 1차 5개년 계획을 일년 반이나 앞당겨 완수하기 위해 천리마를 탄 기세로 내닫는 시기에 자라며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소년단원들도 근로자 아저씨들의 천리마를 탄 기세에 발을 맞추어 더 열심히 배우며 더 부지런히 일해야 할 것은 물론입니다.

지난 날 우리 학교 대에서는 소년단원들의 손으로 토끼 300 마리를 기르기 시작하여 1,000 여 마리를 길러 냈습니다.

그리고 5만 본의 피마주로는 피마주 누에 37장반을 쳐서 220 여 키로그람의 고치를 땄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통하여 많은 산 지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제 6분단 문 장춘 동무는 집에서 기르던 토끼 6 마리를 학교에 가져다 기르면서 남달리 토끼를 귀여워 하며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런데 열성적으로 토끼를 기르면서 그의 성적은 점점 좋아져 학년 말 시험에서는 최우등을 할 수 있었습니다.

《토끼를 기르면서 나는 많은 지식을 새로 얻었고 동물과와 실습과에도 취미를 갖게 되였습니다.》

문 장춘 동무는 동무들 앞에서 늘 이렇게 말하군 합니다.

정말 이 말이 옳습니다.

우리는 지난날 토끼가 새끼를 낳을 때 사람들이 엿보면 새끼를 잡아 먹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여간 의심을 품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사육하고 관찰하는 과정에서 토끼가 갓 낳은 새끼를 인차 죽이게 되는 것은 어미 토끼가 몹시 갈증을 느끼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 물을 주었더니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다섯 달 동안에 피마주 누에를 치면서도 우리는 누에를 기르는데 필요한 온도와 습도를 조절할 수 있게 되였으며 우리들의 손으로 잠구도 만들 수 있게 되였습니다.

우리들은 서로 당번을 짜서 사료를 주며 때때로 총화에서 나타난 일들을 벽보에도 실어 왔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18 분단의 박 금녀 동무처럼 일할 때는 옷만 톡톡 털면서 눈치만 보던 동무들도 이제는 로동을 사랑하며 집단의 영예를 귀중히 여길 줄 알게 되였습니다.

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학과에서 배운 지식을 실지 실험과 실습을 통해 더 익히며 나아가서는 나라에도 리익을 줄 수 있으니 참 꿩 먹고 알 먹는 셈입니다.

그런데 우리 학교에는 더 없이 자랑스러운 일이 또 하나 생겼습니다.

지난 9월 18일 우리 학교 소년단원들은 영광스럽게도 우리의 경애하는 수령 김 일성 원수님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이날 원수님은 소년단원들에게 학습과 건강에 대하여 물으시면서 학교도 일일이 돌보셨습니다.

원수님은 우리들이 기르고 있는 토끼와 피마잠을 보시고 여간 칭찬하지 않으셨습니다.

《좋은 일들을 하고 있소. 앞으로도 동무들 한 사람이 토끼 20마리씩만 기르게 되면 모두 털외투 한 벌씩은 차례질 수 있소》하고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계속 토끼와 피마잠을 치면서 학습과 결부시켜 연구해 나가도록 힘쓰라고 하셨습니다.

원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 소년단원들에게 큰 힘과 기쁨을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지금 우리 학교 대 소년단원들은 더욱 한결 같이 일떠 나섰습니다.

지난 9월 24일에 우리 학교 대에서는 지난 1년 반 동안에 《꼬마 5개년 계획》활동에서 얻은 성과와 결함들을 총화 분석하고 앞으로 할 일들을 의논하였습니다.

이날 모임에서 소년단원들은 앞으로도 《꼬마 5개년 계획》활동을 통하여 더 많은 것을 배우면서 참된 사회주의 건설자로 준비할 것을 결의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해 동안에 3만 마리의 토끼와 375 장의 피마주 누에를 쳐서 3 톤의 고치를 따기로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꼭 해낼 자신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다섯 달 동안의 경험으로 보아 한 해 동안에 한 사람이 40마리의 토끼는 길러 낼 수 있으며 두 사람이 한 장의 누에는 얼마든지 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들은 우선 금년 내로 한 사람이 어미 토끼 두 마리씩 기를 수 있는 토끼집을 지어야 합니다. 때문에 우리들은 지금 널과 못 그리고 토피와 돌을 모아다가 토끼사를 꾸리며 겨울에도 새끼를 낼수 있는 온실과 굴도 만들고 있습니다.

벌써 우리들은 겨울 동안의 토끼 사료를 위해 10 톤의 쎌로쓰를 만들었으며 또 10 톤의 쎌로쓰를 더 마련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하면서도 우리는 토끼가 좋아하는 풀은 어떤 것이며 쎌로쓰는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를 더 잘알 수 있게 되였습니다.

피마주 누에 치기에서도 우리는 원잠종 제조소와 련계 밑에 이때까지 많은 경험을 얻은 8 분단 동무들을 중심으로 누에 치기법을 더욱 열심히 배우면서 기구들을 지금부터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마주 누에 한 장을 치는데는 160 포기의 피마주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한 동무가 피마주 80 포기 심기 운동을 결의하고 우량 종자를 마련하는 일이며 퇴비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기 씀바귀(사라구)로써도 피마주 누에를 쳐 본 좋은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8 분단의 문 정자, 조 정숙 동무들은 피마주 누에 치기에서 잠족(누에가 다섯 잠만에 실을 뽑도록 깔아 주는 기구) 대신에 파지를 리용하여 봉투를 만들어서 그 속에 누에를 한 마리씩 넣어 크고 좋은 고치를 딸 수 있는 새 방법도 생각해 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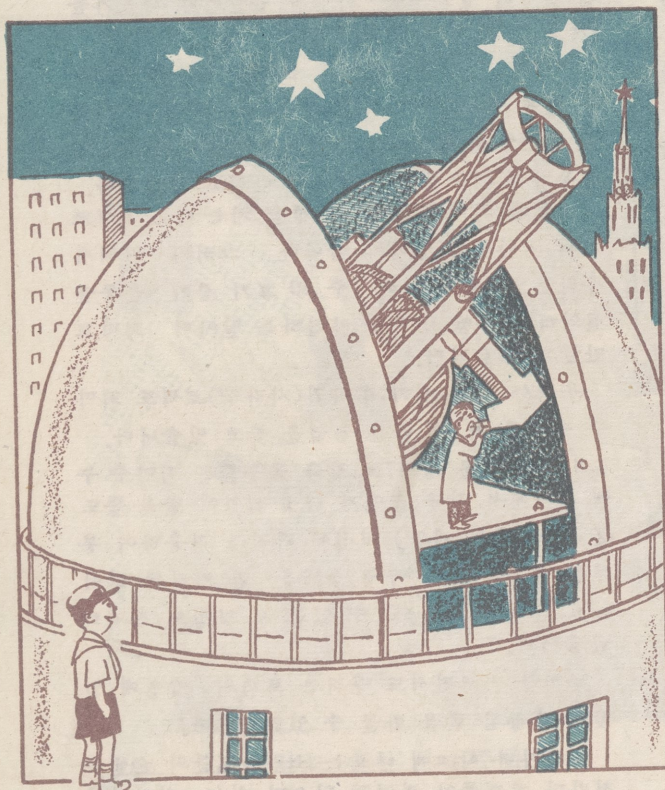
토끼를 기르면서도 우리는 토끼의 습성에 알맞게 훌륭한 굴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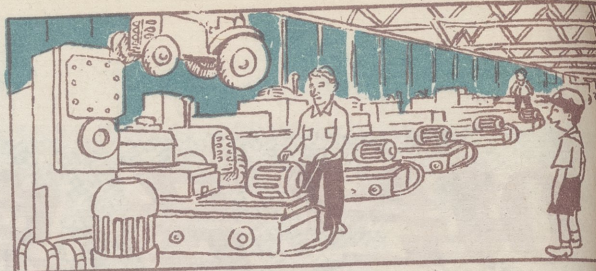
아침마다 학교에 나오는 소년단원들의 손에는 저마다 토끼풀이 쥐여져 있으며 쉬는 시간마다 많은 동무들이 토끼사 앞에 모여 와서는 관찰도 하며 청소도 해 주군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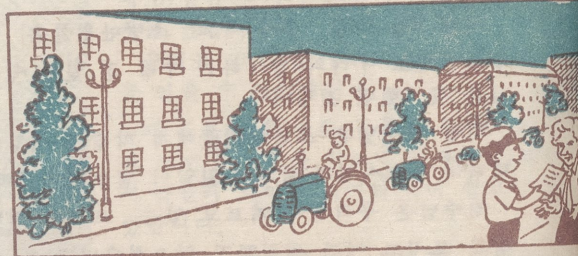
이처럼 배우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배우는 우리들은 지금 근로자 아저씨들의 뒤를 따라 한마음 한뜻으로 더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로케트려행 (3)

얼마 전에 중근동 지역의 려행을 마친 나는 지금 위대한 나라 쏘련 려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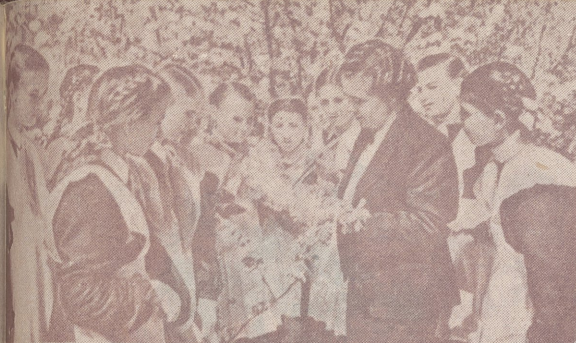
사회주의 10월 혁명 41 주년을 맞는 쏘련 인민은 위대한 레닌 선생이 가르친 길을 따라 더욱 힘차게 공산주의 건설을 진행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나는 모쓰크바 천문대에 이르렀습니다. 가지가지 웅대한 관측 기구들이 설치된 이 천문대에서는 많은 과학자들이 모여 제 3 인공 위성 동태를 살피며 우주 려행을 위한 연구 사업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처음으로 원자력 발전소와 대륙간 탄도 로케트를 비롯하여 인공 지구 위성까지 제작해 낸 쏘련의 일등가는 과학은 미국을 훨씬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쏘련의 모든 공업 기업소들은 벌써 기계화와 자동화가 완성되고 세계에서 처음으로 원자력을 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민쓰크의 어느 한 뜨락또르 공장입니다. 19 대의 기대들이 돌아 가는 곳에서 단2 명의 로동자 아저씨가 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동화된 쏘련의 공업은 미국 보다 3배나 더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사회주의와 평화를 위한 세계의 선량한 인민들의 투쟁을 한층 고무하여 주고 있습니다.

나는 민쓰크 거리에서 처음 만난 한 삐오네르에게 레바논 소년이 보내던 편지를 전했습니다.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씌여져 있었습니다.

《…쏘련 삐오네르 동무들! 우리는 오늘도 미제 침략자들을 우리 나라에서 완전히 몰아내기 위해 용감히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위대한 나라 쏘련을 우러러 바라 보며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고 있습니다. 세계 평화의 성새, 쏘련이 우리를 지지 성원하고 있는한 우리는 최후의 승리를 달성하고야 말것입니다.》

여기는 레닌그라드의 쥬다노브 명칭 아동 궁전 니다. 거리의모든 건물들도 그러 하지만 이 아동궁전 더욱 웅장하고 화려합니다. 삐오네르들은 모든 설비 갖춘 각종 실험실과 공작실, 오락실, 무용실, 도서실 에서 앞날의 훌륭한공산주의 건설자로 되기 위해 험도 하며 물건도 만들어 보는 등으로 마음껏 지식 재간을 키워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쏘련에는 이러 삐오네르궁전이 2,157 개나 있답니다.

나는 쏘베트 영웅 조야와 슈라가 공부한 모쓰크바 201 중 학교를 찾아 갔습니다. 교문에 들어 서자《이 학교에서 쏘베트 영웅 조야와 슈라가 공부하였다.》고 쓰인 붉은 간판이 눈에띄였습니다. 때마침 이 학교 삐오네르들은 조야가 심은 과수 나무 아래서 실험 관찰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조야와 슈라의 모범을 따라 조국의훌륭한 아들딸이 되기 위해 열심히배우며 생활하는 것이였습니다.

쓰딸린그라드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시내 한쪽 옆을 흐르는 볼가강반에 많은 삐오네르들을 태운 기선이 와 닿고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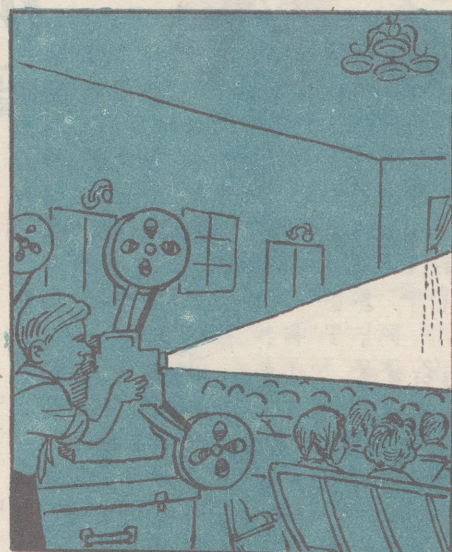
《어데 갔다 오는 길이냐?》

《볼가강을 따라 모쓰크바까지 유람 려행을 갔다 오는 길이란다》

그들은 해마다 이렇게 재미 나는 유람 려행을 계속한다는 것입니다.

먼 항로로부터 돌아 온 어린 려행가들을 동무들은 기쁘게 맞아 주었습니다.

어느 일요일이였습니다. 나는 아르메니야 공화국의 수도 예레반 교외 삐오네르 철도를 구경하게 되였습니다. 거기서는 삐오네르들이 직접 역장, 기관사, 차장이 되여 자기들의 손으로 철도 일을 맡아 보고 있었습니다.

이 곳 삐오네르들은 방과 후나 휴식일이면 마음껏 기술을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 쏘련에는 33 개의 삐오네르 철도가 있답니다.

여기는 쓰딸린그라드의 아동 영화관 입니다. 수 많은 삐오네르들은 지금어린 영화 기술자들이 돌리는 영화를 구경하고 있습니다.

크림의 아름다운 곳에 아르떼크 삐오네르 야영소가 있습니다. 경치 좋고 공기 좋은 이 곳은 여름 한철 각 곳에서 모여 온 수천 명 삐오네르들의 즐거운 휴식터랍니다.

어린이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하여 온갖 배려를 돌리고 있는 쏘련 공산당과 정부는 이 곳에 몸이 약한 어린이들을 위하여 특별히 기숙 학교와 아동 전문 병원까지 설치하였습니다.

나는 그 곳에서 생활하며 공부하는 삐오네르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날마나 건강이 회복되여 간다고 매우 기뻐했습니다. 나는 다시금 생각하였습니다. 세상에서 쏘련 어린이들이 제일 행복하다는 것을!

동무들! 다음호의 나의 로케트 려행은 어데로 될가요? 또 기다려 주십시요!

어머니는 새로 생긴 공장에 출근하신다

평남 성천 제 1 중학교 대대 벽보 주필 김 윤의 가정에서

본사 기자 최 옥 선

늦은 저녁이였다. 이웃 아주머니 한분이 윤이 어머니를 찾아 오셨다.

《형님, 난 래일부터 새로 생긴 공장에 나가 일하기루 했어요.》

윤이 어머니는 뜻밖의 소식에 놀라면서 《아니 무슨 공장이 생겼어요?》 하고 물었다.

《형님은 집만 지키시느라고 모르고 계시누만, 지금 우리 군 뿐만 아니라 공화국 모든 고을들에서는 새 공장들을 수 많이 세우고 있다우.》

인민들의 생활이 날이 갈 수록 풍족해 지면서 인민들은 보다 다양한 물품을 많이 요구하게 되였다. 모든 군들에서는 조선 로동당 6월 전원 회의 결정을 받들고 군마다 새 공장들을 세우고 자기 지방에서 나는 원료로 다양한 물품들을 만들어 내기 시작하였다.

성천읍에서만 해도 식료품 공장, 일용품 공장, 농기구 공장들을 비롯한 다섯 개 공장이 새로 생겼다.

아주머니의 이런 말씀을 듣고 있던 어머니는 《그래 그 공장들에선 어떤 물건들을 만드나요?》 하고 물었다.

《공장이 여러 개니 별아별걸 다 만든다우…그러니 형님두 이제 집안에만 박혀있지 말구 나가 일하시우…》

아주머니의 말을 황홀해서 듣고 있던 어머니는 《글쎄! 나두 나라 일을 위해서 나갔으면 좋겠는데 철 없는 아이들만 집에 두고 어떻게 나가겠소…》 하고 걱정하시였다.

이 말을 들은 아주머니는 《원 형님두 무슨 걱정이 있어요. 막냉인 이번 새로 생긴 유치원에 맡기면 될게구, 윤이는 중학생이구, 대 벽보 주필이지 또 동생들두 다 분단 열성자들인데요.》 하고 웃으며 말하시였다.

아주머니가 가신 후 자리에 누운 윤이는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정말 이때까지 어머니만 안 계시면 집'일은 다 틀려지군 했다. 하루는 어머니가 할머니네 집에 가셨다가 비가 내려 밤 늦게야 돌아 오시게 되였다. 이때 윤이네 형제들은 동무들을 한방 모아다 놓고 방에서 말타기 놀음을 하였다. 어머니가 오셨을 때 방안에는 먼지가 뽀얗게 떠 풍겼고 이불은 의롱 우에서 굴러나 방'바닥에 널려져 있었다. 그 속에서 아이들은 야단 법석을 하였다.

어머니는 묵묵히 비에 젖은 옷을 벗으시며 《너희들만 두곤 어델 가보지도 못하겠다. 이게 무슨 장난이냐.》하고 말씀하시였다. 이날 밤 어머니는 진탕에 빠지며 물을 길어다 비에 젖은 나무로 밤 늦게까지 밥을 지으셨다.

이때 어머니가 애쓰시는 광경을 보는 윤이는 어머니에게 무슨 죄를 지은 것 같이 생각되였다. 윤이는 이런 생각을 하며 어머니가 공장에 나가시려고 해도 집'일이 걱정된다는 말을 하게 된 것은 자기들이 어머니를 돕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생각하였다. 그리고 대 위원회에서 《꼬마 5개년 계획》활동을 잘 하여 공장 건설을 도우며 공장에 나가는 부모님들을 돕자고 남먼저 토론한 일을 다시 생각했다.

사회주의 건설에 참가하는 어머니를 돕는 일, 이것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 건설을 돕는 일로도 된다.

윤이는 이날 밤 오래도록 어머니를 어떻게 도울 것인가에 대하여 곰곰이 생각하였다.

× ×

며칠 후 학교에서는《꼬마 5개년 계획》활동의 하나로서 금번 새로 생긴 공장들을 견학하게 되였다. 동무들은 공장에 들어서자 새로 생산되는 여러 가지 물품들을 보고 기뻐하였다. 여기에서 만드는 물품들은 모두 이 지방에서 나는 재료로 만들고 있었다. 특히 자기들의 《꼬마 5개년 계획》 활동으로 회수하여 들인 조개껍질로는 아름다운 각색 단추를 만들고 있었고 통조림 통으로는 완구, 필통, 쓰레박, 바께쯔, 방둥 등 못만드는게 없었다. 이 밖에도 새롭고 쓸모 있는 가구 용품들을 날쌘 솜씨로 만들고 있었다. 공장엔 대부분이 가정에 계시던 어머니들이 나와 일하고 있었다. 윤이는 일하시는 어머니들을 둘러 보며 (우리 어머니도 빨리 나오시도록 해야겠다)고 생각하였다. 견학을 끝내고 돌아 오던 동무들은《우리 성천두 멋있어 지누나.》하고 감탄하기도 하였고 《우리 〈꼬마 5개년 계획〉활동을 잘해서 원료를 더 많이 모아다 드리자.》, 《어머니 한데두 말해서 공장에 나오시도록 할테야.》 하고들 웅성거렸다.

그러면서 《꼬마 5개년 계획》 활동에서 페품 회수 사업, 조개 껍질 수집, 바구니 엮는 싸리 채취 기타 공장에 필요한 원료를 보다 많이 수집하여 공장 일을 돕자고들 의논하였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 온 윤이는 공장 견학갔던 이야기를 어머니에게 자세히 들려 드렸다. 그리고 자기가 동생들을 맡아

집'일을 돌볼테니 어머니도 걱정말고 공장에 나가시라고 말했다.

이때 어머니는 몹시 기뻐하시면서 그렇다면 안심하고 나가 힘껏 일해 보겠다고 하시였다.

× ×

어머니는 새로 생긴 일용품 공장에 출근하시게 되였다. 어머니가 공장에 출근하신 첫날이다. 윤이는 형제들을 모아 놓고 어머니가 공장에 나가셔서 돌보지 못하는 집'일을 우리가 돌봐야 된다고 타이르면서 집'일을 분공하였다.

윤이는 아침 일어나면 이불을 개고 방안 청소를 하고 물을 긷기로 하였다.

인민반 4학년에 다니는 환이는 마루를 닦고 마당을 쓸게 하였다.

인민반 3학년생인 현이는 나무를 부엌에 나르고, 어린 녀동생 명이는 식사 후 밥상을 치우게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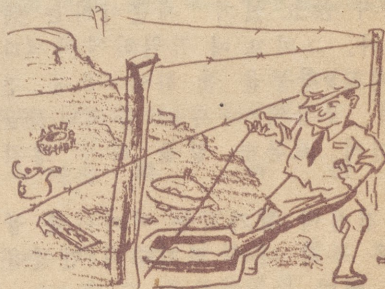
어느 날 어머니는 공장 종업원 회의를 끝마치고 늦게야 집에 오시였다.

이날 윤이는 동생들과 함께 숙제며 그날 복습을 끝마치고는 부엌에서 불때면서 쌀을 씻었고 환이는 방을 청소하고 현이와 명이는 씩씩거리며 물을 길었다.

이 광경을 보신 어머니의 기쁨은 두말할 것 없었고 같이 오셨던 어떤 어머니는 《남자애들인데두 그렇게 집'일을 잘 돌보는군요, 참 기특도 해라…》하고 련신 감탄하시였다.

이날 윤이와 동생들이 저녁 차비를 잘 갖추어 놓아 어머니는 손쉽게 저녁밥을 지으셨다.

저녁상을 치우고 나서 어머니는 윤이와 동생들이 집'일을 잘 돕는데 대해 선물들을 사 주겠다고 하시면서 형제들을 데리고 국영 상점으로 갔다.

이날 밤 윤이네 형제들은 어머니가 탄 첫 봉급으로 사 준 학용품을 안고 사진관에서 사진까지 찍었다.

꼬마 기사의 실수

글 강효순　　그림 기 웅

상호네가 새로 지은 아빠트로 이사 온 첫 날 저녁이였습니다. 그 날은 온 집안 식구들이 큰 명절이나 맞이하는 것처럼 기뻐하였습니다. 상호의 누이동생 옥실이는 고양이를 붙안고 건넌 방과 안'방으로 뛰여 다니며 마치 운동장에서 노는 것처럼 날뛰였습니다.

이 날 상호 아버지는 늦게 돌아 오셨습니다. 그런데 상호와 옥실이는 몇 번 현관 앞에까지 달려 나갔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상호네 아빠트 현관은 세 집에서 같이 쓴답니다. 그런데 곁 방에서 사는 아저씨나 아주머니들이 돌아 와서 문을 두드리면 상호는 아버지가 돌아 오는 줄 알고 문을 열고 현관으로 뛰여 나가군 했으니까요.

그럴 때마다 상호는 좋은 방법은 없을가 하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상호는 리 선생과 같이 물리 실험실에서 새로 베루를 조립하였습니다. 그 날 상호는 아주 그럴듯한 것을 생각해 냈습니다. 그것은 자기네 집에도 베루를 만들어 달 것을 생각한 것입니다.

상호는 리 선생에게서 쓰다 남은 고이루 선과 베루를 만들 수 있는 재료들을 얻었습니다. 상호는 그 날 공부가 끝나자 집으로 달려 왔습니다.

그는 책가방을 걸기가 바쁘게 책상 앞에 마주 앉아서 고이루 선을 감기 시작했습니다.

누이동생 옥실이는 고양이 새끼를 붙안고 오빠가 일하고 있는 앞으로 갔습니다.

《오빠 그게 뭐 하는거야 잉?》

하고 물었습니다.

《베루야 베루!》

상호는 옥실이 얼굴을 바라 보지도 않고 한 마디로 툭 대답했습니다.

《베루가 뭐야 강아지 이름과 비슷하구나.》

옥실이는 오빠 앞에 가서 착 앉더니 들여다 보기 시작했습니다.

《강아지가 아니라 종이야 종, 전기 종이란 말이야.》

상호는 그제야 옥실이를 쑥 바라 보며 싱긋 웃었습니다.

《종? 이거루 어떻게 만들어?》

옥실이는 신기하다는 듯이 까만 눈을 까박거리고 있었습니다.

《이따 봐라. 단추만 척 누르면 종이 〈짜르릉〉하구 울거든!》

《단추를?》 하며 옥실이는 자기 옷에 달린 단추를 꾹 눌러 보는 것입니다.

《어디 종이 울리니.》

옥실이는 오빠의 얼굴을 빤히 쳐다 보았습니다.

상호는 깔깔 웃어댔습니다.

《바보 같으니! 그 단추를 눌러서야 소리가 날게 뭐야.》

《그럼?》

《이따 현관에 다는 단추를 눌러야 돼.》

《그건 왜 현관에 달아?》

《그래야 우리를 찾는 사람이 누룰게 아

니야?》

《그럼 아버지두 돌아 오셔서 단추만 누르면 되겠구나…》

《그럼!》

《야! 좋구나》

옥실이는 손'바닥을 찰삭찰삭 치며 깡총깡총 뛰였습니다.

상호는 고이루 선을 모두 감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녹쓴 종을 모래로 닦았습니다. 그는 용수철을 손'가락으로 퉁겨 보았습니다. 제법 탄력이 있었습니다. 자석도 넉넉히 쓸만하였습니다.

상호는 폐물을 모아서 제법 그럴듯한 베루를 조립해 놓았습니다.

《자 이제는 달면 된다.》

상호는 선을 늘여 놓으려고 도구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꼭 있으리라고 생각했던 전선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상자를 벌꺽 뒤져 보았으나 역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거 이상한데.》

상호는 우뚝 서고 눈을 꺼벅이며 한동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역시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장 뒤에도 들여다 보고 침대 아래도 들어 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전선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동안 더듬어 보던 상호는 무슨 생각이 났는지 도구 상자와 끄집어 냈던 물건들을 모두 제 자리에 놓았습니다.

《옥실이 너 잠간 기다려라, 내 배전부에 갔다 올게.》

《왜》

《아버지한테 가서 줄을 좀 얻어 와야겠어!》

상호는 모자를 눌러 썼습니다.

《너 이것 가지구 장난해서는 안된다. 그리구 다른 아이를 못 들어 오게 해라.》

《응》

상호는 배전부로 달려 갔습니다.

그는 접수원 아저씨 앞에 가서 소년단 경례를 멋지게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계시나요.》

《응! 끄마 기사가 왔구만 들어 가 봐라.》

접수원 아저씨는 싱긋 웃어 보였습니다.

상호는 아버지의 방으로 들어 갔습니다. 상호 아버지는 마침 손님과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슨 일이 잘못 됐는지 옥신 각신 다투고 있었습니다.

(기분 나쁜 때 와서 안 줄 것 같은데)

상호는 이렇게 생각하며 아버지의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이때에 상호 아버지가 상호에게 먼저 물었습니다.

《어떻게 왔니?》

《전선을 좀 얻으러 왔습니다.》

우물 쭈물하는 것을 싫어하는 아버지의 성미를 잘 아는 상호는 차렷 자세를 하고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리 선생이 보내더냐》

이 말에 상호는 얼'김에《네》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뜻밖에 자기의 대답이 멋지게 나왔다고 생각되였습니다. 그는 남모르게 빙긋 웃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필요하다더냐.》

《열 메터 쯤이면 됩니다.》

상호는 역시 서슴없이 대답하였습니다.

《잠간 기다려라. 마침 너의 학교에서 사 달라던 전선을 먼저 얼마간 마련해 놨다.》

상호 아버지는 《지배인 실》이라고 표찰을 붙인 방으로 들어 갔습니다.

상호는 그 말에 가슴이 뜨끔하였습니다. 얼마 전에 상호는 리 선생님과 함께 지배인 선생님을 찾아 와서 실험실에 필요한 전선을 살데 대해 신청을 드린 일이 생각났던 것입니다. 그러나 벌써 아버지는 지배인 실에 들어 가신 후였습니다. 상호는 한동안 망서리다가 베루 장치를 해 놓은 것을 보면 아버지는 학교의 전선을 어떻게 다시 마련해 줄 것이라고 혼자 생각하였습니다.

조금 후에 상호 아버지가 나왔습니다. 상호는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 보았습니다.

아까는 약간 불쾌한 얼굴 표정을 짓고 있었는데 지금은 웃는 낯으로 나오는 것이였습니다.

(주라구 하신 모양이로구나!)

상호는 은근히 기뻤습니다.

상호 아버지는 싱글벙글 웃으며 아까 옥신 각신하던 손님 앞으로 갔습니다.

《과히 념려하지 마서요. 지배인 동지께서 해결해 주시겠다니까요.》

이 말을 들은 상호는 무슨 내용인지는 몰라도 순조롭게 해결되는 모양인가부다 하고 생각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손님은 상호 아버지에게 상냥하게 인사를 하는 것이였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상호 아버지는 싱긋 웃으며 잠을'쇠를 열고 곁 방으로 들어 갔습니다.

그는 조금 후에 빨간 빛갈로 싼 피복선을 동굴게 사려들고 나왔습니다.

《학교에서 요구한 대로는 아직 며칠 있어야 하는데 우선 이것 만이라도 가져 가거라.》

《네》

상호는 넝큼 받아 들었습니다.

전선을 받고 생각하니 상호는 계속 가슴 어느 한편에 께름한 생각이 뭉클거렸습니다. 이렇게 쉽게 얻을 수 있는 전선을 거짓말을 하고 얻어 간다는 것이 어쩐지 떳떳치 못하게 생각되였습니다.

(우리 집에서 쓴다구 이야기하구 가져 갈가?)

상호의 머리에는 이런 생각이 번개처럼 지나갔습니다. 그는 방 안을 쓱 둘러 보았습니다. 방 안에는 낯 모를 분들이 여러분 앉아 있었습니다. 상호는 그런 말을 꺼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필요 없는 말을 꺼냈다가 창피를 당할 것만 같았습니다.

(우리 집에서 쓴다면 안주기 마련인데 뭐!)

상호는 그만 이렇게 생각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분주히 집으로 돌아 갔습니다.

《자 이거 봐라! 이거면 자신 있어.》

상호는 옥실이 앞에 전선을 흔들어 보였습니다. 그는 의자를 들고 왔다 갔다 하며 옥내선을 까고 전선을 련결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너는 또 무슨 장난을 하냐》

건넌 방에서 바느질을 하시던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이따 보서요. 멋이 있는걸 만들어요.》

상호는 노상 신'바람이 났습니다. 그는 선을 련결시키다가 잘못해서 전선에 손'가락이 살작 닿았습니다. 찌르르 했습니다.

《이키!》

상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오빠 왜 그래.》

옥실이는 눈이 동글해졌습니다.

《손에 전기가 닿았댔어! 너 곁에 오지 말어 전기에 닿으면 죽는다!》

상호는 눈을 굴렸습니다. 옥실이는 멀지감치 서서 바라 보고 있었습니다.

《스위치를 떼구 할가?》

상호는 혼자'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고무 테프로 손잡이를 챙챙 감은 뻰치를 들여다 보더니 《일없어 끄마 기사

가 그것쯤 못할테야?》하고 중얼거리며 그 대로 일을 계속했습니다.

상호가 선을 거의 다 련결시켰을 무렵이였습니다. 현관 안에서 고양이 새끼가 죽는 소리를 냈습니다. 상호는 깜짝 놀라며 아래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옥실이는 영문을 몰라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방 안에 계시던 어머니도 뛰여 나왔습니다.

《왜 그러냐 고양이를 때렸니?》

하고 물었습니다.

《아니 저 혼자 그래 이상한데!》

옥실이는 어머니와 오빠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 보았습니다.

고양이 새끼는 어느덧 바람'벽 앞으로 가서 다리를 출출 끌고 있었습니다.

《때리지 않았는데 왜 그러냐.》

어머니는 상호를 쳐다 보았습니다.

상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어머니 가만 계서요.》

상호는 의자에서 뛰여 내렸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전선을 끌어 당겼습니다.

《저 현관 바닥에 물이 고이지 않았어요? 거기 전선이 닿아서 물에 전기가 갔댔어요. 그걸 모르구 고양이가 물을 밟았거던요.》

《아니 물에도 전기가 오냐?》

《그럼은요. 쇠 줄에만 오는 줄 아서요.》

《야 그럼 큰 일 날번 했구나.》

어머니는 고양이를 붙안았습니다.

고양이는 어느덧 옥실이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너는 공부는 하지 않구 그런 위험한 장난만 해서 어찌겠냐.》

어머니는 상호에게 나무럼했습니다.

《어머니는 참! 아 이건 공부 아닌줄 아세요, 이것두 모두 학교에서 배운거야요.》

상호는 노상 뽐냈습니다.

어느덧 공사가 끝났습니다.

《자 이제는 개통식이다. 어머니도 나오서요.》

상호가 소리쳤습니다.

《무슨 장난을 하기에 그리 떠드는거냐.》하며 상호 어머니는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자 보서요.》

상호는 출입문 옆에 단 단추를 눌렀습니다. 단추를 누르자 건넌 방에 단 베루에서 《짜르릉》하고 요란한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야!》

하고 옥실이는 깡충깡충 뛰며 현관 안을 빼글빼글 돌았습니다.

《야 그것 참 신기하구나.》

어머니는 상호 곁으로 와서 단추를 물끄럼히 들여다 보는 것이였습니다.

《어머니도 한번 눌러 보서요.》

상호는 단추 누르는 방식을 어머니에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어디 한 번 눌러 볼가?》

어머니가 단추를 눌렀습니다. 베루는 또 요란히 울렸습니다.

《오빠 나두 한 번 해 볼테야 잉!》

옥실이는 상호의 옷자락에 매달렸습니다.

《한번만 꼭 해 봐라.》

《응》

옥실이는 발뒤'축을 고이고 단추 앞에 매달렸습니다. 그러나 키가 닿지 않았습니다.

《좀 들어 줘 잉》

옥실이는 노상 어리광을 부리며 졸라댔습니다.

《자》

상호가 닁큼 들어 주었습니다.

옥실이는 잠자리라도 잡으려 가는 손'가락처럼 조심스럽게 단추를 눌렀습니다.

《짜르릉》

하고 종'소리가 요란히 울리자 옥실이는 깜짝 놀라며 손'가락을 뚝 뗐습니다.

《어때, 재미 있지.》

《응》

그들은 기뻐 날뛰며 여러 번 종을 울렸습니다. 이러는 바람에 곁방에서 사는 아이들도 모두 뛰여 나왔습니다.

《어디서 종'소리가 나니.》

아이들은 눈이 둥글하여 현관에서 두리번거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오빠가 만든거야, 너희들은 저 단추를 누르지 말어.》

옥실이는 출입 문 앞에 딱 막아 서고 아이들을 곁에도 오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한번 구경 시키자꾸나.》

상호가 옥실이의 머리를 쓸어 주었습니다.

《그럼 오빠가 눌러 줘》

상호는 단추를 눌렀습니다.

《야! 멋이 있구나!》

아이들은 환성을 올렸습니다.

《어때 우리 오빠가 이거지?》

옥실이는 어미 손'가락을 펴 들고 아이들 앞에 흔들었습니다.

그 날 저녁이였습니다. 상호와 옥실이는 무척 아버지를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몇번인지 모르게 소비 조합 상점 앞에까지 나가서 배전부 쪽을 바라 보았습니다. 그러나 가로등에 불이 반짝 켜질 때까지 아버지는 돌아 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저녁 상을 물린 다음에야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옥실이와 상호는 밖으로 뛰여 나갔습니다.

《아버지! 문을 두드리지 말구 이 단추를 누르세요, 오빠가 만들었거던요.》

옥실이가 왁자 떠들어 댔습니다.

《그게 뭐냐?》

하며 아버지는 단추를 눌렀습니다. 베루가 울렸습니다. 이 소리에 아버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상호를 바라 보았습니다. 아버지의 얼굴 표정은 좋아하는 편이 아니였습니다. 눈치 빠른 상호는 그만 얼굴을 숙이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냐, 학교에서 쓴다구 하더니.》

상호 아버지는 복도를 들어 서면서 새로 가설한 선을 쳐다 보는 것이였습니다. 상호는 복도에 선 대로 돌미륵처럼 굳어져서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들어 오너라.》

아버지는 모자를 말뚝에 걸며 상호를 불렀습니다. 상호는 방으로 들어 왔습니다.

《베루를 만들기 수고했군! 그런데 너는 언제부터 그런 거짓말군'이 됐냐.》

부드러우면서도 아주 엄한 질문이였습니다. 상호는 역시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부엌에서 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옥실이도 손'가락을 입에 물고 아버지와 상호를 번갈아 쳐다 볼 뿐이였습니다. 아버지가 엄하게 말했습니다.

《배전부에서는 우리 집에 쓰라구 주지는 않았지?》

이때에 어머니가 저녁 상을 들여 왔습니다.

《아니 왜들 그러우》

어머니는 영문을 몰라 눈이 둥글해졌습니다.

《엄마! 학교에서 쓴다구 거짓 말을 하구서 빨간 줄을 얻어 왔대.》

옥실이가 어머니의 귀에다 입을 대고 쑤군거렸습니다.

《저런 일을 봤나.》

어머니도 깜짝 놀랐습니다.

《너는 나까지 거짓말쟁이로 만들었구나.》

상호 아버지는 가늘게 한숨을 짓는 것이 였습니다.

상호는 후닥닥 정신이 드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거짓말쟁이가 됐다?)

상호는 입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상호는 이 세상에 아버지처럼 좋은 분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지금까지 그릇된 일을 한 번도 하는 것을 못 보았습니다. 그런데 거짓말

쟁이가 되다니!

상호는 머리를 좌우로 흔들었습니다. 상호의 머리에는 며칠 전에 표창장과 상금을 타 가지고 돌아 와서 기뻐하시던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배전부 아저씨들이 자기네 집에 올 것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때 지배인 아저씨는 어떻게 생각하실가?)

이렇게 생각하니 그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상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상호는 어느덧 의자를 가져다 놓고 베루 앞으로 올라 갔습니다. 그는 뻰치로 선을 뜯으려고 하였습니다.

《너 어찌자구 그러냐.》

아버지는 후닥닥 일어서며 깜짝 놀랐습니다. 상호는 주춤하였습니다.

《너 스위치를 그대루 두구 선을 뗄 작정이냐, 큰 일을 저지르려는 모양이로구나.》

상호는 그제야 알았다는 듯이 아버지를 쑥 돌아 보았습니다.

《일없어요.》

상호는 자신 있다는 듯이 짐짓 그 대로 줄에 뻰치를 댔습니다.

《얘야 너 셈이 있냐 없냐.》

아버지는 상호의 손에 든 뻰치를 빼앗았습니다.

이때에 옥실이가 아버지 앞으로 빠르르 달려 갔습니다.

《아버지! 오빠는 아까두 그대루 했다우, 고양이두 죽을 번 했는데요 뭐.》 하며 옥실이는 장 앞에 오똑하니 앉아 있는 고양이를 바라 보았습니다.

《고양이가 죽을 번 하다니.》

《현관에서 줄을 달댔는데 줄이 늘어졌댔거던요, 고양이가 그 곁에 있다가 전기에 닿았지요 뭐, 저것 보서요, 아직 저녁도 먹지 않구 있어요.》

《너 그러다가 큰 일 저지르겠구나? 전기에 감전되면 죽는다는 걸 모르냐? 전기는 사람에게 지극히 편리한 반면에 잘못 다루면 아주 위험한 것이란 말이다. 전기에 대해서 쥐꼬리만큼 밖에 모르면서 벌써 그렇게 당돌해졌냐, 네 부주의로 옥실이가 만일 감전됐다면 어떻게 됐겠니! 그리구 그렇게 자유로 전기 가설을 하는게 아니야!

그것은 전기 도적질이란 말이다. 모두 너처럼 매 가정에서 전기를 도적해 쓴다면 공장의 기계는 멎구 말게 아니냐, 그러면서두 전기 기사가 되겠다구? 그런 행동을 해서는 기사 곁에두 가지 못하겠다. 사람은 정직해야 하는거야 알겠니?》

《네》 상호의 대답은 모기 소리만 했습니다. 아버지는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리구 생각해 봐라! 서투른 솜씨로 선을 잘못 달아서 합선이 되면 우리 아빠트는 화재를 만날 테지? 그리구 배전부의 도란스가 탈수도 있단 말이다. 그때는 공장의 기계가 멎을게구 그렇게 되면 너 한 사람 때문에 수만 명의 로동자 아저씨들이 일을 못하게 될게 아니냐, 그런 생각은 도무지 해보지 않았나?》

상호는 차근차근 하시는 아버지의 말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그는 부수스 현관으로 나와서 스위치를 뺐습니다.

상호는 손 전지를 들고 아버지와 함께 가설했던 선을 모두 뜯었습니다.

상호는 피복선을 아까 얻어 올 때와 꼭 같이 동글게 사려 놓았습니다.

《그 선은 어떻게 할 작정이냐.》

하고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상호는 대답할 말이 궁했습니다.

《왜 대답이 없냐》

아버지의 독촉이였습니다.

《배전부에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잘 생각했다. 의례히 그래야지.》

아버지는 그제야 빙그레 웃었습니다.

《나와 같이 갔다 오자.》

아버지는 걸었던 모자를 벗겨 쓰는 것이였습니다.

《래일 당신이 가져가면 안되우? 저녁이 식겠는데.》

어머니의 말이였습니다.

《래일이요? 그럼 그릇된 행동을 하루 묵인하란 말이요?》

아버지의 꾸짖는 음성이였습니다.

《저 혼자 갔다 오겠습니다.》

상호는 복도로 나갔습니다. 상호 아버지는 어머니의 시선과 마주 치며 싱긋 웃었습니다. 그는 모자를 쓰고 상호의 뒤를 좇아 나갔습니다.

상호는 앞장 서서 배전부로 향했습니다. 동산에 오른 둥근 달은 그들의 길을 환히 비쳐 주었습니다.

훌륭한 솜씨

청진 제2 중학교 대에서

본사 기자 박 정 렬

꼬마 기술자들은 고성기를 만든다.

《이 계수기도 소년단원들이 만든건가요?》

《우리의 자랑》이라는 《꼬마 5개년 계획》 활동을 총화하는 전람회장에 들어 서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이렇게 묻군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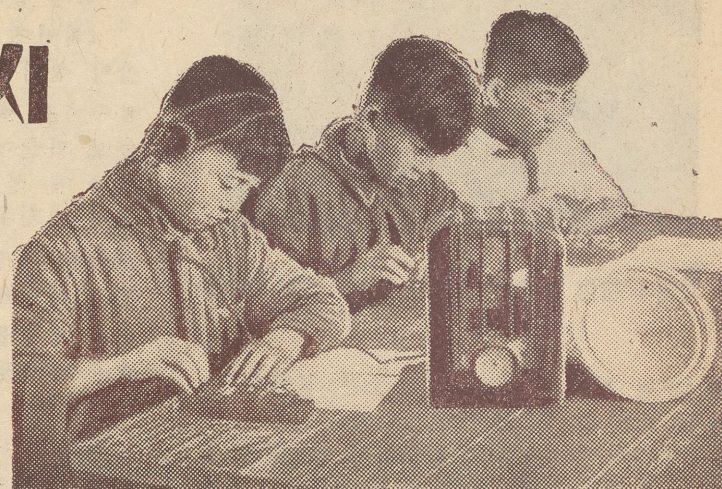
빨갛고 파란 색의 큰 계수기 하나만 보아도 이 학교 공작 크루쇼크원들의 훌륭한 솜씨를 짐작할 수 있다.

진렬대에 차려 놓은 유치원생들과 1학년생들이 쓸 수 있는 산판과 각종 오락기구 그리고 화분, 휴지통, 다이야몬드껨, 여러 가지 모형의 자루와 실험 기구들, 삼발이, 문걸개, 쓰레박, 꽃삽, 송곳, 스피카, 환등기, 비누, 수채화 등 이 모든 것이 다 이들의 솜씨로 만들어진 것이다.

《그거 참 기특하군.》하고 바쁜 틈을 타서 우정 구경 오셨던 아버지, 어머니들도 소년단원들의 솜씨에 여간 감탄하지 않으신다.

지난 날 이 학교 대에서는 사회주의 건설을 위해 천리마를 탄 기세로 내닫는 근로자 아저씨들을 돕기 위한 《꼬마 5개년 계획》활동을 훌륭히 해 오는 가운데서도 공작 크루쇼크원들의 역할은 더욱 컸었다.

이 학교에서는 지난 해 학과에서 배운 지식을 실습을 통해 더 잘 익히기 위하여 대 모임을 열고 자기들의 손으로 공작실을 꾸릴데 대하여 의논했었다.

새로 선거된 대 위원회에서는 소년단원들의 의견 대로 이 문제를 대 위원회 계획에 구체적으로 밝히고 10월부터 분단별 모임들에서 의논하는 일로부터 시작하였다.

장차 사회주의 건설자로 준비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할것 없이 한 가지 이상의 기술을 배우도록 힘써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작실, 물리 실험실, 생물, 화학 실험실들을 훌륭히 꾸려야 한다는 것을 깨닫도록 이야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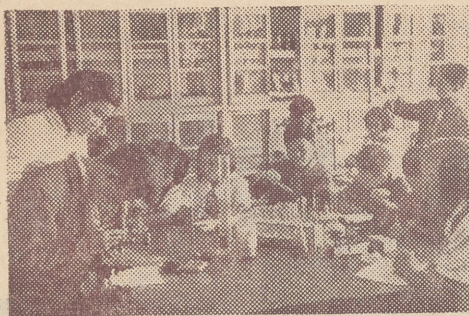
이때부터 소년단원들은 자기들의 손으로도 능히 훌륭한 실험실을 꾸릴 수 있다는 자신을 가지게 되였다.

방과 후와 일요일이면 짬짬이 후원 단체들과 집집을 찾아 다니며 실험 기구들을 찾아 내였다.

날마다 학교에는 값 비싼 실험 기구들과 재료들이 늘어 갔다.

한편으로 크루쇼크원들은 집집에 파묻혀 있던 여러 가지 기구들을 조립하여 쓸모 있는 새로운 실험 기구들을 만들어 내였다.

이리하여 한 학기 동안에 모은 것만 해도 공작실에는 100 여 개의 각종 톱과 86 개의 대패, 4 개의 볼반, 2 개의 모터, 110 개의 각종 뻰치, 100 여 개의 가위, 2 개의 제재기, 그리고 구라인다, 함마, 먹통 진드래, 망치 등 41 종의 기구 1,200 여 점을 갖출 수 있었다.

이 설비만 하여도 시'가로 100 여 만 원이

피마주'대의 섬유를 분석해 보는 소년단원들

나 되는 것이라고 하니 이들은 그만큼 나라에 리익을 준 셈이다.

이때부터 이들은 8 명씩 8조로 앉을 수 있는 공작실에서 마음껏 실습하며 여러 가지 물건들을 만들어 낼 수 있게 되였다.

지금 이들은 로동당 중앙 위원회 6월 전원 회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일용품 생산에 궐기한 로동자 아저씨들을 돕는 일에서 훌륭한 열매들을 맺고 있다.

지금 이 학교에서는 크루쇼크원들은 물론 모든 소년단원들이 매일 같이 공작실을 찾아 오고 있다. 그들은 공작 시간에 배운 것들을 더욱 잘 익히기 위하여 기대 앞에서 실습도 해 보며 또는 배 철환 선생님의 지도 밑에 직접 여러 가지 실험 기구들도 만들고 있다.

특히 김 용진, 김 양득, 전 일련, 김 한철 동무들은 벌써 목선반을 능숙히 다루어 훌륭한 계수기들을 많이 만들어 내고 있다 .

이들의 일'손을 재는 모습들은 마치 어느 공장 로동자들을 련상케 한다.

《래년엔 우리 학교에도 교마 종합 공장이 설치될 것입니다. 그때에는 이런 계수기는 물론 사진틀과 각종 오락 기구들도 만들어 국가에 수매시킬 수 있습니다.》 배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들의 계획은 참으로 훌륭하다.

이들은 지난 여름 방학에만 하여도 도와 중앙에서 열린 전람회에 계수기와 유치반 동생들에게 줄 계수기 산판을 수십개나 만들었으며 다이야몬드껨도 여러 개 만들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휴지통, 화분통, 쓰레박, 부삽도 훌륭히 만들어 후원 단체와 학교들에 선물하였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 모든 재료의 대부분을 폐품 가운데서 얻으면서도 항상 《절약과 증산》의 구호를 높이 내걸고 있다. 일정한 계획 밑에 저마다 삽발이를 만들고 남은 작은 쇠줄들로는 문'고리를 만들며 화분통들을 만들고 남은 널쪼각으로는 백묵통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그 밖에 물리 실험실과 화학 실험실도 《교마 5개년 계획》 활동에 의하여 훌륭히 꾸려졌다.

물리 실험실만 하여도 전압계, 온도계, 망원경, 사진기, 변압기, 발전기, 축전기, 축음기, 자동차 엔진, 전화기 등 450여 점의 실험 기구들을 갖추고 있다.

물리 크루쇼크에서는 지금 방송국과 해안 무전국, 기계 수리 공장과 련계 밑에 교마 방송실을 만들고 있으며 교실마다 스피카 장치도 자기들의 손으로 하고 있다.

아직 교재에서 배우지 않은 부분을 실험 실습하는 크루쇼크원들은 몹시 신기해 하며 흥미를 가진다.

환등기도 만들며 통신 련습, 사진 촬영법도 배우는 이들 가운데는 장차 통신 기수, 기사 또는 사진사가 될 것을 희망하는 동무들도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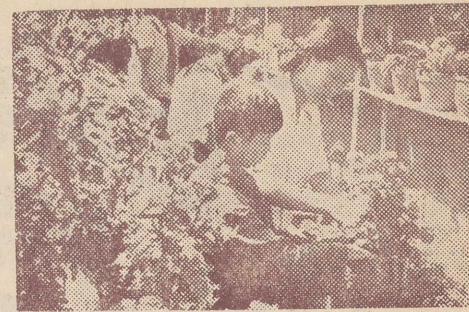
그리고 이 곳 소년단원들은 《교마 5개년 계획》 활동에 의하여 아담하고 훌륭한 아동 공원도 가꾸고 있다.

공원 둘레에는 2 만 본의 복숭아, 살구, 앵두나무를 심은 과수원이 있으며 실습지가 있다.

이들은 지난 봄에 1,000 여 평의 황무지를 일구고 해바라기와 피마주를 세밀색 파종하여 가꾸어 왔었다.

토질이 나쁜 야산에 심은 실과 나무며 피마주, 해바라기와 호박 등을 가꾸는 일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니였다.

여름내 이들은 가물과의 투쟁에서 해주—하성간 광궤 철도 공사에 동원된 민청원 형님들처럼 일하는 마음으로 물을 길었고 공원을 가꾸었다.

이리하여 호박산에서는 10 여 톤의 호박

온실에서 식물을 관찰하고 있는 소년단원들

을 수확했으며 피마주도 훌륭한 수확을 예견하고 있다.

래년부터 이들은 피마잠을 100 여장 이상 치기 위하여 지금 두 장의 피마주 누에를 치면서 경험을 쌓고 있다.

공원에는 1,000 여 마리의 토끼를 기를 수 있는 동산과 토끼사도 만들고 있다.

지난 봄부터 이들은 600여 마리의 토끼를 기르면서 토끼의 습성, 사료 등을 연구해 왔다.

이처럼 이 학교 대의《교마 5개년 계획》 활동은 학습과 생산을 밀접히 련결시켜 훌륭한 성과들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교마 5개년 계획》 활동을 통하여 이들은 배운 지식을 더욱 굳게, 깊게 다질 수 있었으며 저마다 로동을 사랑하는 참된 소년단원으로 자라나게 되였다.

2톤의 피마주를

우리들이 《교마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심은 피마주는 180~200센치메터나 되게 자랐습니다. 그 피마주에는 열매가 80~90 여송이나 달려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동무들이 저마다 60대 이상의 피마주를 심었으니 얼마나 훌륭한 일입니까!

13 분단의 문 영순 동무는 400대의 피마주를 심고 거기에 물도 주었고 김도 매주었고 개구리와 뱀을 잡아다 추비를 주면서 정성껏 가꾸었습니다. 다른 동무들도 다 이렇게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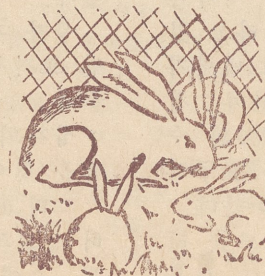
우리들은 7월 15일에 첫 수확을 했습니다 우리의 첫 수확은 48키로그람이 였습니다. 이것은 여문 것만 딴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은 2차, 3차, 4차로 피마주를 수확하면서 2톤의 피마주를 국가에 바칠 것입니다.

황남 신천군 제 3 중학교
대 위원장 림 현옥

나날이 늘어가는 토끼

우리들이 《교마 5개년 계획》 활동의 하나로 기르는 여러 마리의 토끼들은 어제 새끼 토끼를 또 스무 마리 낳았습니다. 그러니 우리 학교 토끼 수는 301 마리로 되였습니다. 이것은 다른 학교에 자랑할 수'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나날이 늘어가는 토끼를 볼 때 참으로 기쁘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들은 생물과에서 배운 지식을 직접 토끼를 기르면서 더 잘 익히고 있습니다.

이제는 모두 토끼 기르는데 자신들을 가지게 되였습니다. 처음 우리들은 약초와 폐품을 수집하여 얻은 돈으로 100

마리의 토끼를 샀습니다. 그리고 150 평방메터 되는 넓이에 토끼사를 지었습니다.

새끼 토끼들은 우리들이 가져다 주는 사료를 먹고 손자 토끼를 낳았습니다. 그리하여 301 마리의 토끼가 되였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소년단원 동무들은 한 쌍의 토끼를 저마다 집에서 기르고 있으며 《교마 5개년 계획》 활동으로 나라를 돕고 있습니다.

황북 은파군 궁덕 중 학교
최 덕 환

농업성 축산국 **리 용 문**

토끼는 우리들의 생활에 필요한 고기, 가죽, 털을 제공해 주는 매우 유익한 가축이다. 토끼는 보통 한배에 5~10마리 이상의 새끼를 낳는다. 그러므로 한 마리의 암토끼에서 1년에 30마리 이상의 새끼를 받을 수 있으며 그 새끼가 4~5개월경에는 체중 1.8~3 키로그람에 달하며 또 번식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토끼는 각종 청초, 건초 및 농업 부산물 등을 사료로 하고 간단한 야외 상자에서도 쉽게 기를 수 있다.

토끼의 사료

토끼가 잘 자라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질 좋은 사료를 충분히 먹여야 한다.

때문에 여름 철에는 토끼가 잘 먹는 청사료(민들레, 칡, 길장구, 냉이, 새콩, 말굴레풀, 크로바, 옥수수, 해바라기, 뚝감자, 아카시야, 싸리움, 만문한 새초 등)를 리용하며 기타 호박, 마령서, 무, 씰로쓰, 두부 비지 등을 먹이는 것이 좋다. 그러나 더러워진 것, 곰팡이 낀 것, 썩은 것 등은 먹이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토끼에게는 물을 적당히 먹여야 한다. 특히 젖먹이는 암토끼와 자라고 있는 어린 토끼에게는 매일 깨끗하고 냄새가 없는 물을 제때에 갈아 주어야 한다. 청사료를 먹일 때에는 사료에 약 90%의 수분이 섞여 있어 그다지 많은 물을 요구하지 않으나 아침과 낮에만은 주어야 한다.

겨울 철에는 주로, 건초와 씰로쓰를 리용하게 되는데 어미 토끼 한 마리에 하루 건초 250 그람을 주는 것이 좋다.

건초는 줄기가 쇠지 않고 잎이 많은 청사료들을 말려서 만들어야 한다. 토끼는 솔'잎도 잘 먹으므로 때때로 이것도 먹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만약 호박, 무, 뚝감자, 마령서 등 사료들이 얼었다면 반드시 삶아 먹여야 한다.

토끼의 시중

토끼를 시중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주요한 것은 상자에 습기가 없도록 깨끗이 거두는 일이다. 특히 추운 때나, 새끼를 낳을 토끼에게는 깨끗하고 부드러운 짚을 충분히 깔아 주어야 한다.

그리고 류의해야 할 것은 개나 고양이, 쥐들이 갓난 새끼들을 해하지 않도록 항상 상자에 구멍을 없이 해야 한다.

토끼는 추위에 대해서는 비교적 강하나 더위에 대해서는 매우 약하다. 그러므로 무더운 때에는 직사 광선을 받지 않도록 그늘을 지어 주어야 한다.

토끼의 상자(집)

토끼의 관리에는 여러 가지 있으나 보통 상자 관리와 공동 관리 방법을 적용하게 된다.

상자 관리에서 큰 토끼는 한 마리씩 어린 토끼는 2~3마리씩 넣어 기르는 것이 좋다.

상자의 규격은 아래와 같이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리고 상자의 바닥은 두께 1.5~2 센치메터 정도의 반반한 판자로 틈이 없이 만들어 똥, 오줌이 앞으로 흘러 내릴 수 있게 전면으로 5센치메터 정도 경사를 지운다.

	대형 품종	중형 품종
길 이	150cm	100~120cm
넓 이	70cm	60cm
전면 높이	75~90cm	75~90cm
후면 높이	45~55cm	45~55cm

상자의 재료로써는 목재, 벽돌, 토벽돌들을 사용한다.

이렇게 만든 상자는 남향 또는 동향으로 배치하고 바람, 비, 짐승들의 침해를 막기 위하여 벽과 천정에 틈이 없도록 해야 한다. 어미 토끼의 상자는 한쪽에 칸을 막아 새끼 낳는 방으로 리용하게 하는 것이 좋다.

또한 젖을 뗀 새끼들을 공동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공동 상자를 리용한다. 공동 상자에는 어린 토끼 10~15 마리씩 넣어 기르는 것이 좋다.

토끼의 번식

질이 좋은 새끼를 많이 생산하기 위해서는 사양 관리를 잘하는 동시에 질좋은 토끼를 선택하여 옳게 교배시켜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보다 크고 건실한 새끼를 받을 수 있으며 질이 좋은 모피와 털을 생산할 수 있다. 이 잡종 번식에서는 주로 수컷을 개량 품종으로 선택해야 한다.

토끼는 나서 보통 4~5개월이 지나면 새끼를 가질 수 있게 된다. 발정기가 되면 토끼는 짚을 모아 둥지를 틀려 하며 허리를 쓰다듬어 주면 들어누워 몸을 길게 펴기도 한다. 이렇게 되면 곧 종부를 시켜야 한다.

그리고 새끼를 낳은 후 영양 상태가 좋으면 어미 토끼는 새끼 낳은 날이나 그 이튿날에 발정하는데 그때에 종부만 시키면 새끼를 가질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그 때를 놓치면 그 후는 13~21 일에 다시 발정하게 된다.

수토끼는 암토끼와 달라 언제든지 종부시킬수 있는데 영양 상태가 나쁘거나 또는 털갈이 시기, 무더운 시기에는 종부를 삼가는 것이 좋다.

토끼들은 개별적 상자에 넣어 두고 한 마리의 수토끼에 9~10 마리의 암토끼를 배정하는 것이 적당하다.

다음으로 토끼의 번식에서는 새끼들의 생활력을 높이기 위하여 서로 다른 조건에서 자란 토끼들로 종부시키는 것이 좋다.

례를 들어 겨울에 낳은 수토끼에는 여름에 낳은 암토끼를(혹은 그 반대로), 늙은 암토끼에는 젊은 수토끼를(혹은 그 반대로)교배시킨다.

또한 될수록 친척 번식을 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한 해에 한번 이상 수토끼를 바꾸어야 한다.

종부는 수토끼의 상자에서 시켜야 한다. 만일 암토끼의 상자에 수토끼를 넣게 되면 환경이 달라졌음으로 수'놈은 잘 응하지 않는다.

종부시킨 암토끼는 안정시켜야 한다. 그리고 종부에 가장 좋은 때는 겨울에는 11시부터 3시까지이고 여름에는 신선한 아침과 저녁이 적당하다.

소년들의 머리와 손으로!

요즘 우리 학원 공작 크루쇼크원들은 명태 아금지 뼈로 단추를 만드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이것은 김 동철 동무가 생각해 낸 것입니다.

동철 동무는 처음에는 공작 도구도 다룰 줄 모르는 동무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크루쇼크에서 솜씨를 익혀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철필'대를 만드는 단순한 일부터 시작하여 점차 도구 사용법을 배워 나갔습니다. 그 후 그의 재간있는 솜씨는 늘어 필통, 드레박 같은 복잡한 물건들도 혼자서 만들어 내게 되였습니다. 그는 다시《어떻게 하면 페물을 효과있게 리용할 수 있을가?》하는 생각을 하게 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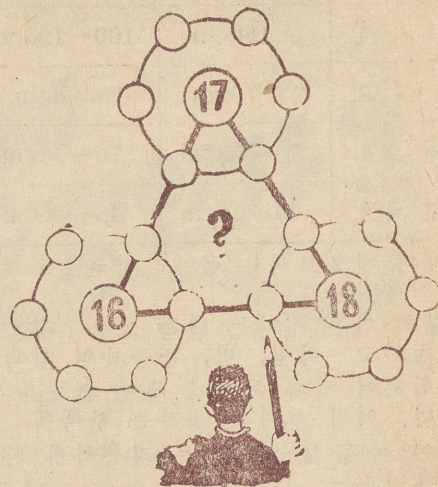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내버린 명태 아금지 뼈를 동굴게 갈아 구멍을 뚫고 아주 훌륭한 단추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여러 동무들에게 모범이 되였습니다. 이에 자극을 받은 많은 동무들은 유리 쪼각을 녹여 그릇을 만들며 뼈로 철필'대를 만들어 내는 일에 착수하게 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 학원 공작 크루쇼크에서는 학과에서 배운 지식을 실험과 실습을 통하여 직접 물건들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함남 오로군 장흥 초등 학원
대 위원장 맹 춘삼

60이 되게 하라

세 개의 큰 동그라미에는 작은 동그라미가 여섯 개씩 있다. 가운데에 씌여 있는 수'자를 제외하고 1부터 21까지의 수'자를 작은 동그라미에 써 넣어 큰 동그라미 하나하나가 60이 되도록 하라.

9호 현상 문제 해답 및 당선자

(1) 답—어른들을 존경하고 동생들을 사랑하자

(2) 당선자

학교	이름
평북도 구장군 동림 인민 학교	강 창옥
평북도 룡천 제 1 중 학교	리 영일
평양 제 5 인민 학교	리 덕
평양 제 46 중 학교(인민반)	백 병남
함남도 신창군 제 7 중 학교	김 창전
함남도 함흥 제 1 고중(인민반)	원 활란
평남도 문덕 제 1 중 학교(인민반)	김 춘자
평남도 강남군 월암 인민 학교	리 인순
개성시 사직 중 학교	리 정서
개성시 만월 중 학교(인민반)	리 인순
함북도 경흥군 백안 인민 학교	천 종근
함북도 김책군 제 5 중 학교	김 주완
강원도 회양군 하교 인민 학교	수 부숙
강원도 안변 초등 학원	박 태화
자강도 전천군 중암 중 학교	장 명자
자강도 우시군 제 2 중 학교	김 명자
황남도 장연군 락연 중 학교	문 태북
황남도 벽성군 룡정 중 학교(인민반)	정 순녀
황북도 사리원 제 1 초등 학원	리 춘웅
황북도 장풍군 룡흥 중 학교(인민반)	오 승휘
량강도 운흥군 운총 중 학교(인민반)	리 봉호
량강도 부전군 백암 중 학교	정 시춘

앞표지: 꼬마 축산기사— 평남 순천 제 1 중 학교대 리 영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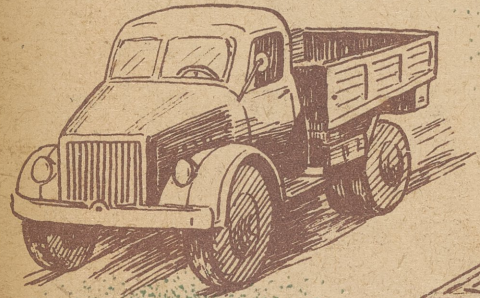
뒤'표지: 어린 음악가— 평양 제 15 중 학교대 (인민반) 김 용훈(10세)

편집 위원 김 학연 (주필) 강 효순 림 홍은 박 웅호 송 정우 정 택선 조 순형

1958년 10월 15일 인쇄 조선 민주 청년 동맹 중앙 위원회 소년 잡지
1958년 10월 22일 발행 《소년단》 1958년 제 11호 (총 109호)
발행소 민 청 출 판 사 인쇄소 로동 신문 출판 인쇄소

ㄱ—41126 값 25 원 80,000부 발행

《꼬마 5개년 계획》 활동에서 할 수 있는 일

락화생 16톤 700 kg으로
화물 자동차 (까스) 1대

해바라기 씨 1 kg으로
세탁 비누 1 개

피마주 3 kg으로
옥양목 1 메터

호박 씨 10 kg으로
면 메리야스 1 벌

집 토끼 가죽 250매로
제비표 자전차 1 대

닭 털 1 kg으로
세탁 비누 8 개

수세미 오이 8개로
옥양목 1 메터

아까시아 나무 씨 20 kg으로
고무장화 1 켤레

도토리 100 kg으로
광목 8 메터